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陸軍態度不變時는 反對理由明示要求

宇垣氏와陸軍間緊張한場面展開乎

組閣本部側에도强硬論

【東京電話同盟】 宇垣大將의 組閣에 對하야 陸軍側이 强硬히 反對하고 後任陸相을 推薦하지안키때문에 組閣本部에서는 二十八日 陸軍側과 會見하고 後任陸相推薦을 다시 懇請하야 陸軍側이 어데까지 拒否할境遇에는 陸軍側이 宇垣大將의組閣에反對하는 理由의 明示를 求하자는 强硬論이잇는바 宇垣大將도 이點에關하야 相當한 決意를 갖고잇다 고傳한다 陸軍側이 어데까지 後任陸相을 推薦치안흘時에는 同大將은 組閣反對理由를求할는지도알수업다 이에對하야 陸軍側은 左와如한 見解를갖고 宇垣大將이 이問題를끄집어내일時에는 宇垣大將과 陸軍과의 間에 相當히 緊張된場面을 展開하리라고 思惟된다

宇垣大將은 組閣의 大命을 拜하고잇슴으로도 會見을 求하면 이를 拒否하지는안켓다 그러나 宇垣大將의 組閣에對한 陸軍部內의 情勢는 이미 屢次說明하엿고 또 三長官會議에서도 決定한바와如히 後任陸相推擧至難의 旨를 寺內陸相으로부터 正式回答하엿고 宇垣大將도 充分諒解하는줄로 信한다 따라再次 宇垣大將이 三長官會 開催를求하드라도 陸軍의 確乎한 態度에 何等變更도 加할수업고 또 宇垣大將의 組閣에 反對한 그理由에 對하여는 今日肅軍이 모처럼 其端緖에 就하려하는此際 이것으로 軍內部 反目을 招來하게되면 兩者가 모다損傷을 밧게될것임으로 陸軍은 斷然反對치안흘수업는바이다 宇垣大將으로서는 全軍의 意思를 察知하고 組閣을 斷念함이最善의 方途라고 斷定한다

對陸軍關係緩和努力

組閣希望不斷念

今日中新事態展開乎

【東京電話同盟】 組閣工作第三日인二十七日宇垣大將의組閣工作은 宇垣大將과 湯淺內府와의 會見이잇서슴뿐으로 何等進展도업시 依然流産의危機에直面하야 憂慮할만한情態를 繼續하고잇다 그러나 宇垣大將은 時局의重大性에鑑하야 아직微力을다하야 萬全을 講究함이 自己의責務라는 구든信念下에 組閣工作을 어데까지斷念하지안코 何等手段을 講究하야 局面을 打開하려고 苦慮하는模樣이다 그리고 今後의 組閣工作은 後任陸相推薦拒絶로 正面衝突의形勢를呈하게된 對陸軍關係를 可及的緩和하야 圓滑케할 必要가잇슴으로 이點에關하야 모든 手段方法을 考究한 結果 어데까지 組閣工作을 完成하기를 決意하고 對陸軍關係를 本軌道로 復歸케함이 先決問題라하야 이點에 極力努力하기로되여 二十八日中에 宇垣大將은 再次寺內陸相을爲始하야陸軍首腦部를 訪問하고 懇談하기로되엿다 그러나 陸軍側의 態度는 旣報한바와如히 極히强硬함으로 이懇談結果 果然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야 窮通打開의途가 열릴는지豫斷을不許하고 또리혀 逆結果를齎來할 危險性이 잇슴으로 或은事態를 益益混亂에陷케할結果를 招來하야 組閣工作을 決定的破局으로 誘導할 憂慮가잇다고 觀測되는바 依然組閣工作의 前途는 憂慮되여잇다 如何튼二十八日中에는 何等新事態가 展開되여이것으로 大體의豫想이서게될것이다

難澁한持久戰!

組閣決意는依然强固

憂鬱의散步 宇垣大將의感傷

【東京電話同盟】 難澁滿三日의苦惱에 허덕이면서 組閣本部二層에 籠城하야 頑强히 軍部와持久戰을 繼續하는 宇垣大將은한잠도 못일우고 밤이새자 午前八時朝食을마친後「憂鬱하니 散步나하겟다」고 말하면서 모잉에목도리를 굴근목에 휘휘감고 茶色中折帽에 스틱을 두르면서二百坪이나되는 內庭을 檻中의猛獸처럼 散步할때 庭前에 희게핀 梅花를 보고「아 참귀엽다」고 感歎하는말을 하엿다 新聞記者團에包圍되여「事態如何한가」하는 質問을 밧고「나는每日아침一時間式散步하는것이 常이나 組閣에着手한以後는 甲속에 머리를움츠리친거북이와가티 二層에 가처 運動도 全然할수업다 그래서배도곱호지안코 晝夜도업다 술맛도업고 머리도무겁다 이래서는 나도 妙案을 생각해내일수업다 나도굶겟다」고 弄笑한 將軍에게도一種憂鬱한 氣運이 떠돈다「그러나組閣에 對한 初志는 變하지안흘것이다 이러한時勢에잇서서는 나도버리겟다」고 決意는 依然强固하다「내에게 도孫子가 생겻다 하하!…」하면서 大將의組閣모양도 한거름보다 男兒를分娩한 二女秀子女士를 생각하고 快笑한다「孫子의일홈은 귀차」는니 組閣이라고지을가…… 이것은 弄談이다 말도 안되니가「귀다란 배를만지면서 豪傑의 우슴을웃는다 그리고 女婿矢野氏等의挽留도 듯지안코 自動車車庫집웅에 올나가 邸宅의周圍를살펴본다 警備의警官隊, 長蛇陣을布하고 各新聞社의自動車 邸宅中의 急設便所等周圍를 眺望하고「집웅에서 下界를보면서 오래간만에 世上을 보앗다」고 戀慕라도한것처럼 혼자말하면서 무엇시생각낫는지 組閣本部로 入하엿다 午前十時關東女學校生徒代表가 明治神宮에宇垣大將의 組閣成功 祈願을 올리고 人事次로本部를訪問 이귀여운 擁護者의來訪은 大將을깃부게하엿다

寺內陸相 偕行社에移舍

【東京電話同盟】 寺內陸相은 二十七日午後六時二十分 小松秘書官을 同伴하고 官邸를떠나 九段偕行社新館에 移轉하엿다

百武侍從長과 內府等다參內

【東京電話同盟】 百武侍從長은二十八日午前八時五十四分 宇佐美侍從武官長은 同五十分 湯淺內府는 同九時七分 松平內大臣秘書官長은 同五十八分 모다 宮中에參入하엿다

陸軍三長官에게 宇垣氏會見要請

今井田淸德氏、寺內陸相訪問

【東京電話同盟】 今井田淸德氏는 二十八日午前十時三十五分 組閣本部를떠나 陸相官邸에 寺內陸相을 訪問하고 宇垣大將과 陸軍三長官과의 會見하기를 申請하고여러가지로 協議하엿다

【東京電話同盟】 今井田淸德氏는 宇垣大將과 陸軍首腦部와의 會見에對하야 陸相과 會見하고 協議한後가 아니면 今日午後에 될는지엇절는지 不明하다 고 말하엿다

陸軍側의回答은 아마업슬듯 會見後今井田氏談

【東京電話同盟】 今井田淸德氏는 二十八日寺內陸相과 會見後組閣本部에서 左와 如히 말하엿다

앗가 宇垣大將의 使者로 寺內陸相을 맛나고왓스나 그內容은 只今은 말할수업는 狀態이나 只今도한번 맛나게될지 엇절는지는 아즉決定못하엿다 陸軍關係에 잇서서 昨日과 別히 變한 情勢가되엿다고 말할수업다 저쪽側의回答을 기다리고잇는것도 아니다 나는 使者로 갓다왓슬뿐이므로 그結果의 成不成을 判然히 말할수업스나 陸軍側의 回答은 아마 업슬듯하다 陸相以外의 陸軍首腦部의 人物들에게 내가 使者로 갈豫定은 只今은업다 只今 參內의豫定에 對하야도 只今은 무엇이라고말할수업다 軍部大臣以外의 折衝은充分한 用意를가지고잇소나 個別的으로는 折衝하고잇지아라 當方으로서는 될수잇스면 協調하야 圓滿히 結末짓고저한다 또現在 이以上의非常的方法을 取할것은 생각하고잇지안으나 境遇의 硏究는하고잇다

寺內陸相談 아모것도말안켓다

【東京電話同盟】 二十八日午前十時五十分 陸相官邸를 訪問하고 寺內陸相과會見하고 宇垣大將과 陸軍三長官과의 會見에對하야 豫備交涉을行한 今井田淸德氏는同十一時十分官邸를 辭去하야 同二十分組閣本部로 歸還하엿다 今井田氏와 會見한後 寺內陸相은 左와如히말하엿다

會見에對하여는 今井田氏에게 듯기바란다 我等은 아무것도 말할것이업다

原田男園公에報告

【興津電話同盟】 政變以來興津水口屋에滯在中인 原田熊雄男은二十七日午後五時五十分 坐漁莊에 西園寺公을 訪問하고 宇垣大將組閣에關한情報를 報告하고 同六時三十分辭去하엿다

軍部態度依然强硬

流産의危機不去

局面打開의一縷希望부첫든 三長官會見도絶望

宇垣大將要請을 陸相、婉曲히拒絶

【東京電話同盟】 宇垣大將은 二十八日 마침내 積極的態度를取하야 局面打開工作에 進出하기로決意하고 組閣參謀今井田淸德氏로하여금 寺內陸相을訪問케하야 宇垣大將과陸軍三長官과의會見을 申請한바 이에對한 寺內陸相의言은 軍全體의情勢가 今日과如하여서는 假令 會見한대도 御期待에副할수업스리라고 會見을無用으로말하야 應諾을明示치안흠으로 今井田淸德氏는 不得已組閣本部로歸還하야 그趣旨를 宇垣大將에게報告하엿다 이에對하야 宇垣大將이 如何한方策을取할는지 元來豫測할수업스나 局面打開에잇서서 一縷의希望을 囑하고잇든 三長官과의懇談도 絶望케되게되여 第一段의 圓滿解決工作은 失敗에 歸하엿스나 宇垣大將은 組閣을 斷念치안코 다시 第二 第三의 方途를 講究하야 組閣을 强行할決意를 固히하고잇다 陸軍의態度가 豫想以上으로 强硬함으로 이대로 나가면 到底히 組閣工作을 進捗하기困難함으로 依然流産의危機에 直面하여잇는 實情이다

會見하여도效果업다고

【東京電話同盟】 今井田淸德氏와 寺內陸相과의會見은 二十八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約二十分間에亘하야 行하엿는데 爲先今井田氏로부터 宇垣大將의 意向을傳하고 宇垣大將이 陸軍代表와맛나懇談하고십다 고會見을要望한데對하야 寺內陸相은 陸軍部內의情勢는 何等變化된바업슴으로 맛나도效果는期待될것이업다 고會見의無効를말하야 婉曲히會見을拒絶하엿다

天機奉伺의樣式 尾崎氏贊成

【東京電話同盟】 尾崎行雄氏의申請에關한 議會의 意思表示問題는 二十七日 富田議長과 政民兩黨代表가 協議한結果 此際 天機奉伺하는形式에 꼿치는것이 妥當하다는데 意見一致되여 富田議長은 右趣旨를 尾崎氏에게 回答하엿든바 尾崎氏도이에 對하야 贊意를表하고 二十八日午前九時 代理로 田川大吉郎氏가 富田議長을 官邸에訪問하고 右趣旨를 諒하엿슴으로 議長은 同日午後一時半 永井民政、安藤政友의 兩幹事長을 招致하고 其取扱方法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今明日中에 各派交涉會를 開하고 本會議의 日字其他를 決定하기로되엿다

蔣介石氏와會見後 汪精衛氏談話發表

【南京廿七日發同盟】 奉化에서蔣介石氏와會見하고 西安事變善後處置에 對하야 協議한後 廿七日歸京한汪精衛氏는 二十七日午後左의談話를 發表하엿다

一、蔣介石氏는 容態略好하다비치 잇고 腰痛은 아직도 낫지안흐나 자못元氣로 身體도 回復되고잇슴으로 반드시三中全會前에 歸京할수잇슬것이다

二、西安事變에 對하야 中央은 最大의忍耐를하야 該地軍隊의反省을 期待하고잇는바 同隊가 速히 覺醒하기바란다

三、外交方針其他 一切의政策問題는 모다 旣定計劃에依하야 進行할方針이며 行政機構는 絶對로 變更할 必要가업다

四、國民大會의 召集及 附議問題는 三中全會에서 決定할것이어다 그리고 右行政機構無變更에依하야 行政院長에 蔣介石氏의留任을 暗示하는것이라고觀測된다

上海事變 五周年記念日

【東京電話同盟】 二十八日은上海事變五周年記念日에 該當함으로 午前十時부터 靖國神社에서 慰靈祭를 執行, 永野, 寺內兩軍部大臣을 爲始하야 陸海將星多數參列 午後零時半부터 愛國婦人會 在鄕軍人會、奉公會、國防婦人會等諸團體主催로 日比谷公會堂에서 將兵遺族慰安會를 開催、軍歌、歌謠、舞踊萬歲映畫等이잇서 慰安會를이루엇다 夜에는 同公會堂에서 事變記念日의夕을 開催하고 野村海軍大將의演說이잇섯다 그리고 當日橫須賀鎭守府麾下의 特別陸戰隊一個大隊는 海軍砲術學校敎官 木山中佐指揮下에 午前八時新橋着驛車를 先頭로海軍軍樂隊의 行進曲과 함께銀座街로부터 須田町을 거처九段靖國神社에 參拜한다음 宮城前에到着하야 皇城에拜하고 正午解散하엿다

法制的手段準備 아즉考慮안는다

◇組閣本部에서今井田氏談

【東京電話同盟】 今井田淸德氏는 二十七日午後十時半 組閣本部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今夜이곳에서 組閣을完成하기爲하야 어떤活動을 開始하리라고 思하엿스나 今夜에는 特別히 活動하지안코 明日(二十八日)로 미루기로 되엿다 明日이라고해도 午前中에限定된것은아니다 여기서는 圓滿히解決하려는 本旨에서 모든 境遇에對하야 考究하고잇는데 陸相을 엇기爲하야 何等法制的手段을 準備하지는안는다 그러한方法에依한 解決은 考慮한일이업다 明日宇垣氏가 陸軍當局首腦部와會見할는지도 알수업스나 여기서는可及的 圓滿한 協調에依하야 解決할 精神임으로 其會見時 今日考慮하고잇는 이精神에反하는 例하면陸軍大臣을 엇는데對하야 어떤決意라든가或은用意를하는일은 업스리라 고생각한다 海軍側으로부터는何等回答도接하지못하엿스나 또督促할時期에到達한줄로도 思하지안는다 따라 明日陸軍側과會見한後 곳海軍側과會見하리라고 豫定되지안핫다 陸軍大臣問題가 不調로終了될境遇 海軍大臣만이라도 내여달라고 懇請하려고는생각지안는다 要컨대可及的圓滿한 協調에依하야 解決하려는것으로 何等異例의方法에依하야解決하려는決意는업다 卽陸相問題에 對하여는 어데까지 三長官의 合意에依하야 어드려고思한다 事態解決까지 何時까지 이狀態가繼續할는지 다시 한번 더 御猶豫를 乞하려고는 豫想하지안는다 明日 宇垣大將이 內大臣과 會見할는지 또參內할는지는 明日이아니면 알수업다 다만今日 그러한豫定이업다는것만은말해둔다 그리고 電報로 入閣交涉을 行하는일은 全然업다

米海軍長官 三工廠에建艦命令

【華盛頓廿七日發同盟】 스완손海軍長官은 二十七日 一九三六年度建艦計畫에基하야 驅逐艦二隻潛水艦一隻의建造를 필라델피아 노오크、메아島에잇는 海軍工廠에命令하엿다

八面錄

◇ 宇垣氏組閣第四日。陸軍이어데까지 陸相推薦을 拒否하면 그理由의明示를 求하리라고。

◇ 이럿케 難産의苦悶中에「安産」吉報가잇다、그것은 大將의二女가 男兒를順産한것。

◇ 蘇聯이 極東兵力을 一千萬으로는다는「뉴ー스」가잇다。

◇ 眞假與否는 모르되、이만흔 兵士를 一列橫隊로 右로나라니 세우게한다면 그距離가얼마나될가。

◇ 每人의間隔을二尺으로치고每間三人式이라하면 一千五百四十四里餘、朝鮮里數로는 實로 一萬五千餘里에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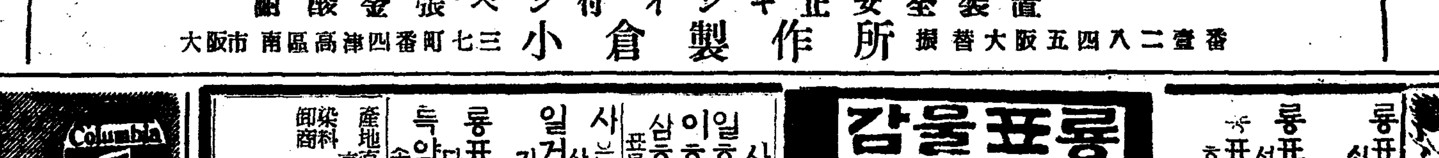
◇ 그러케치는것보다도、海參威에서 「치타」까지 사람으로城을싸흘수잇다 하면그만。

◇ 秦始皇의 萬里長城은 녯말이오、이것은 萬里肉城이라할가。

(印入專門) タオル・ハンカチーフ各木綿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心齋橋筋 商報呈 植田仁本店 電話船場四〇四〇番

卸各種切端人絹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 四綾・朱子・人絹・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 親切히指導합니다・大阪南局第二三號函 大阪市南區瓦町東 津村合資會社 商報送呈・見本은 十五錢切手要 電話南二四八九・振替大阪一三八三三番

卸製造皮帶・眼鏡・袋物 大量薄利多賣・防寒マスク特價提供 (カタログ送呈) 大阪市浪速區河原町千日前 島田市商店 電話戎三九八六番

잉크의有無를判然히알수잇는透明萬年筆 (特價) 實物大見本(前金壹圓送料二十錢)透明輪

耐酸金張ペン付インキ止安全裝置 大阪市南區高津四番町三七 小倉製作所 振替大阪五四八二壹番

卸製造各種樂器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カタログ進呈 中井樂器店 電話戎五一二三番

卸製造袋物入錢 大阪市東區博勞町一丁目 商報呈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振替大阪六四三七五番

아이생활 2月號 10錢 아이생활社 集大募支局地方

物理醫療師 分院長資格特別講習 最新最効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總長은東京電醫學校創立者兼院長 ◎物理最効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內務省令으로前途漸漸有望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今回는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求하라 內容規則進呈 申込順으로特典附與 朝鮮唯一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 朝鮮高等電醫總本院

大邱信明女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約五十名 (大邱南山町二番地) 電話一三三九番 出願期日 三月二十五日限、試驗期日、三月二十七、二十九、三十日、詳細本校照會

룡표물감 獨逸原料 룡표물감은세상에나온지십이년간애용하시는신은혜를보답코저사은권을드립니다

룡표물감 고시쓰사봉한감물 녀비금금성합 요시십가타

사은품 일호에는합성금비녀일개 이호에는합성금귀이개일개 삼호에는사은권이십매와룡표물감한봉과교환함 사은품 교환기일과방법은 사은권에그재되엿습니다 일거양득이오니 기한지내기전에빨리선사품을바더가십시요 룡표물감은다잇습니다 특약판매를원하시는분은속히조회하십시요 産地直輸入元 京城府鐘路三丁目 染料御商 德世洋行 龍標封染製造部 電話光化門二八〇四番 振替口座京城八〇四番

コントロールミシン 代表的國産 十五種 蛇ノ目ミシンの嚆矢 一郡一店代理店募集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京城鐘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化門二九六番 カタログ送呈 外交員募集

醫師試驗準備書 漢醫文醫學講義通信敎授 付內容見本進呈 今大募集 京城府新設町二三九

情熱의嘆息 Columbia 콜럼비아레코ー드特別發賣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效를가진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슴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究素!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어로平고하는말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一番

一春雪！一

(今日 太平通所見)

建築材料昂騰으로 土木事業對策樹立

廿八日土木出張所長會議에서協議한結果

鐵材는官給키로決定

하천(河川)항만(港灣)도로(道路)등 삼천만원이라는 방대한예산을 신년도에 편성한 총독부내무국에서는 최근의 일반적물까고로 인하야 공사를예정대로진행키힘들게되엇슴과 또의회(議會)가 해산되다면 추가예산과공사진행에 어떤대책을 세울것이냐 또로동자의부족은 어떠케할것이냐하는 문제에관하야 이십팔일오전 내무국토목사업관계자가 모이어 협의회를열고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다락아래와가튼것을 결정하엿다

一、의회가순조로진행치 못하면 당연히 공사가 느저질것이니 의회가해산될것을 각오하고그전에 공사의설계측량등의 준비는 미리하여 두어 공사착수가 과히 느저지지 안토록할것 의회가 해산되여 예산은 공추가하야 제출한다해도 전부가 원안대로 통파치못할것은 각오할수바게업다

一、일반물까중에도 특히 공사의 중심되는 철재(鐵材)의앙등으로 공사가 예정갓지못할것은 필연의 사실이니 그대책으로 공사를 청부케하되철재와석세멘트는 관급(官給)으로하야 될수잇는대로 청부에대한 공사단가를 내리도록할것

一、로동자는 현상으로보아 상당히 부족될것은 사실이다죽 삼천만원공사에 대하여 그사활을 임금으로보아 합게일천이백만원이라고하고 한명에대한평균일금임금을 칠십전으로계산한다면 연인원(延人員)일백칠십수만명이필요한데 금번은 만주이민이며 공사관계도 사업회사의것이만흥으로 상당히 부족할것으로보임으로 그조절보충에 십분용이하여야할것이고 또 임금은 종래이부가 특십전내지칠십전이고 특히 항만공사에는 칠십전 내지구십전을 지불한것도잇스나금년은 일반물까가 고등하엿고 로동자의부족관계도잇슴으로 임금인상을 필요한경우도잇슬것이니 이점도고려할바이다

대략이와가튼것이 협의하엿는데특히 로동자문제에 관하야서는 류생(柳生)사회과장이 출석하야의견교환을 하엿다

咸北西水羅에 怪飛行機가旋廻

關係當局事實調査

【警務局着電】이십팔일아침 함경북도 서수라서(咸北西水羅署)로부터 총독부경무국에 도착한보고에의하면 이십오일 오전십시오십오분경 청진(淸津)방면으로부터 소속불명의 괴비행기(怪飛行機)가떠와서 서수라상공에서 선회하다가 연추(煙秋)방면으로사러젓는데 동십일시에는 또다시 와봉(臥峰)상공에 그와갓흔 괴비행기가떠서 지나가는 푸로페라의 풍음이 들렷슴으로 서수라서에서는 시국이시국인만치 이괴사건을엄중조사중이다

公州地方法院 大田으로移轉

行政、交通上諸點을考慮하야 新年度부터移轉着手

충청남도공주(公州)에잇는 지방법원(地方法院)은 변전도청을 대전(大田)으로 이전한후 곳이전하라고 하얏스나 지방의 정세와 예산기타여러가지 관계로 이때까지 그실현을 보지못하고 잇든바 공주는 교통이불편한관계로 도청파따로 떠러저서 사무련락상 불편한관계 등으로마침내 공주지방법원을 대전으로이전하기로 결정하얏다 그이전에 대하야는 이십오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야 신년도부터 착수할터인데 소화십삼년까지 전부완성하자면 소화십사년까지죽 이개년을 요하리라한다 이로인하야 공주는일층 더적막하야지든반면에 대전은 실로비약적번영을 보게될것이다

電車自動車衝突

이십칠일 오후두시이십오분에 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오십오호아페서 인천부송림리(仁川府松林里)일백팔십륙번지의 록호에거주하는 하물자동차 운전수 리경성(李景成)(三)이가 경오천이백십구호차를 운전하고가든데 그뒤를 부내신설정(新設町)일백삼십이번지의 사십이호에 거주하는 김순동(金順同)(三)의 운전하는 경전이백이십호전차가 질주하자 충돌할지경이되여 경적을울렷슬때 때는이미느저 그만 충돌하게되여 전차의 피해액이 약일백삼십원가량이라하나 인명에는 상방에해가업섯다한다

少年詐欺漢

이십팔일오전 여섯시쯤 부내삼판통(三坂通)이백십팔번지 대총유리공장직공리홍수(李興洙)(三)의집에 나이십륙세가량되는 소년한명이나타나 리홍수의십부름이라고하고 주인은광장에서 부상을당하야 집에못오면서 외투와구두를 가지고오라하니 달라고하야 어더가지고 어데로인지다라낫다는데 외투와구두는 시가십오원가량이라 한다 이를알지한 룡산경찰서에서는 범인을수사중이라한다

京軌貨物車 人夫를轢殺

이십팔일 오전열시 서대문구(西大門區)하천공사장 (河川工事場)에서 경성궤도(京軌) 화물차운전수 동대문구(東大門區)상백팔십이번지 김행해(金行惠)(二)가 그공사장에서 일하고잇는신당정(新堂町)이백이십륙번지 김다복(金多福)(三〇)이를 치여서죽게하엿다 원인은전기 김행해가 화물차 열네대를 운전하야 그곳에 이르럿슬지음에 일하고잇던김다복이가 급히피하지 못하고그와가튼 참변을 연출하엿다고한다

入學手續添附戶籍 抄本謄本別

學校따라各各다르다

경성부내에 잇는 각전문학교와 중등학교의 금번입학원서에 첨부할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은 학교마다다르게 되여잇다 그러므로 경성을콜론하고 입학을 지원할사람은 이것을잘 알아두어서 틀리지안토록 주의 하는것이 조호리라한다

學校名	入學願書에 添附할 戶籍抄本別
城大豫科	謄本
京城醫專	〃
世醫專	抄本
京城齒專	〃
中央佛專	〃
京城藥專	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普成專門	謄本
延禧專門	〃
梨花女專	〃
京城高工	〃
京城高商	〃
京城師範	出願者에게抄本을提出시킨뒤入學許可者에게 更히謄本을提出시킴
同女師範	謄本
京城中學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龍山中學	謄本
城東中學	抄本
京第一高	抄本
京第二高	謄本
普成高普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培材高普	謄本
普成高普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徽文高普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中央高普	抄本
第一高女	謄本
第二高女	謄本
淑明女高	抄本
京城女高	謄本
進明女高	抄本
槿花女高	抄本
梨花女高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對해서만提出시킴
同德女高	謄本
京城工業	未定
京城商業	未定
京城農業	抄本(現存者)
善隣商業	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商業	限習
大同商業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女商	抄本
京城實業	謄本
協成實業	謄本
京城女實	謄本
漢城商業	未定
京城職業	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農業	限習 抄本
中東學校	謄本
京城電機	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保育	限習 謄本
中央保育	抄本
貞信學校	抄本
儆新學校	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高等	限習 抄本 但入學許可者에
京城實修	限習 抄本

怪盜「再名」

淸涼里驛出札係에서 百餘圓現金盜難

往十里町에도金庫破壞窃盜

◆이십칠일 오후일곱시사이 청량리역(淸涼里驛)출찰계(出札係)암기마것(岩崎萬吉)(三)이가 그날 표판돈 일백십원을 자기책상설합에 두고 변소에잠깐갓다가 온사이 약십분동안에 엇던자가 그돈을 전부 훔처가섯다고하야 그역에서는 곳소관경찰에 구래인을 ... 신고하엿다고한다 ◆이십칠일밤에는 부내상왕십리(上往十里)정일백사십륙번지정영배(鄭永培)(三)의 상점에 엇던괴한이 침입하야 상점 잠근쇠를 깨어버리고 손첩이 금고(현금오십사원과 자긔저금통장)를 훔치고 어디론지 다라낫는데 소관 동대문서에서는 청량리역의 괴도사건과함께 범인을엄탐중이다

航空無線局도 近日中竣工

大邱飛行場의鐵壁陣

開場當日엔記念스탬프使用

경상북도와 대구부(大邱府)의 지원으로 공사지휘중에잇던 대구비행장(大邱飛行場)도 오는삼십일에 그개장식을 거행하고 이일부터 동경대련선의 정기항공기의착항을 보게되엿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따라 항공의안전을보도하기 위하야대구에항공무선국(航空無線局)을건설중이던바 근근그준공까지 보게되여 대구는 명실함께 남조선의 중요한 항공의완성으로 말미아마 울산(蔚山)비구가되엿다 이대구비행장의 완

列車自動車衝突

이십칠일오후 열한시사십분경에 천안역(天安驛)을떠난 렬차가 그역부근철도길목에 이르럿슬때에 경남철도(京南鐵道)자동차부 태시중남루백호 (忠南六百號)가 그렬차와 여페충돌되어 렬차와 자동차가모두 조금식부서젓다 그러나 다행히 사람이 상하지안핫다 한다

꼿피는四月에 서울차저올外客

歐米各國名士三百名이 豪華船타고勝地구경온다

철도국에 드러온 정보를보면 독일 『함부르아메리칸』기선회사소속 세계주유선(遊覽船)「레라이안스」호는 구미각국 명사삼백명을 태워가지고 꼿피는사월에 인천에 드러온다는데 그이튼날 서울에와서 부내각처를 두루구경하고 그날밤 내지로 떠나 별부(別府)기타 각명승지를 구경할 예정이라한다 그배는 이만톤이나되는 큰배이며 한사람에 약칠천원가량 비를 가지고 나왓다한다 서울에 와서도 그「밀러」의일부분을 떼트리고 가게될모양이라한다

(이상 교통관계) 해장은 꼿피자릴 예정이엇스나 조선에처음인항공기와 항공기술에 대한 기를 일반시키는 한편 전조선항공의 기기발을 하게되나 조선간 급회 속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비행장의 개장식은오

전 정오부터 시작되고 열하지 부터는 축하비행을 실시하는데 어여는 비행기 축하비행이 일본항공 회사기 게시기둘러수가 참가하고 독그릭이다-누루부의 「소아련」「포크어이카」 또 참가할터이라한다 그리고 이외분회 대구 우편국에서는 이날부 터 그날 통신의날 기념으로 우편국으로하여 되엿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이를기념하기위하야 특수통신일부인 금다유리가를 특수한이「스탬프」를 항공유편에서 사용하게 되여기념스탬프에 수송품과 정기항공개시일을기념하여 사용케한 다고한다 (사진은 기념스탬프)

蹴雄을決할 兩軍의對陣決定

明日로迫頭한평권俱樂部招聘氷上競技大會

빙상경기게의 기린아(麒麟兒)! 동경평권구락부일행여서명은 본사의 초빙을바더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일、이、삼위를 모조리차지한 영예의우승배를 선물로 금이십팔일오전여덜시 경성역착렬차로 원기왕성한가운데 입경하엿다 역두에는 체육계관계자와밋 친지들의 성대한출영이잇섯스며 일행중 김정연(金正淵)군은 동경에두렷다가 하루늣게 명이십구일오전여덜시에입경하야 당일의 경기회에참전케되엿다 그리고 리성덕군은 만주에 원정중인데 경기회에 참가하도록 주선중이나 출전키어려울것으로 추측되다 일행은주비해둔 자동차에분승하야 먼저 조선체육회회장 윤치호(尹致昊)씨를방문하고 경의를표한후 무교정 송옥려관(松屋旅館)에려장을 풀고 이날오전에 인사차로본사를 방문하엿다 그리하야 오후두시부터 청량리 링크에서 경쾌한연습을마치엿는데 명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열릴모범경기회는 경성의 일류맹장을 망라하야 평권군과 대항전을하게되여 다음과가티대진을결정하엿다(사진은 본사래방한 평권군)

【五百米】(세파레ー트) (安重熙(평권) 金用濟(徽新)) (張日弘(평권) 金吉異(徽新)) (鄭庚彦(白狗)) (崔龍振(평권) 崔炅洙(延專)) (金正淵(평권) 白承哲(普專))

【千五百米】(세파레ー트) (張祐植(평권) 白承哲(普專)) (安重熙(평권) 金永河(白狗)) (崔龍振(평권) 崔炅吉(延專))

【五千米】(오픈코ー스) 金正淵(평권) 尹世植(同上) 張祐植(同上) 安重熙(同上) 崔炅洙(延專) 金永河(白狗) 朴性用(徽文) 金用濟(徽新) 白承哲(普專)

【二千米릴레ー】 ◆평권팀(金正淵·崔龍振·張祐植·張日弘) ◆白狗팀(崔炅洙·金用濟·金永河·鄭庚彦)

銀盤의覇者今朝入京 本社來訪

(金正淵(평권)) (金永河(白狗)) (金正淵(평권)) (朴性用(徽文))

故鄕의銀盤우에서 記錄更新의意氣

동경평권구락부일행은 금이십팔일 오전여덜시 경성역착렬차로 입경하엿는데 루지만한 전일본선수권대회의 행운 질과악천후로 말미아마 엿든 기록돌파의 결심도 도라갓스나 이번경성에서 여코 자기들의、기록을갱신코저 의기충천하야잇다 세계기록에 육박하는 당로의 우리 과연그들의 기록을 어데까지 단축할것인가 이에쏠리는 인끼는 절정에 달하얏다 평권군의 기록은 아래와가튼다

金正淵 五百米‖四五秒七 千五百米‖二分二五秒 (日本最高記錄) 三千米‖五分〇四秒九 (同上) 五千米‖八分四九秒九 (同上) 一萬米‖一八分一秒

崔龍振 五百米‖四六秒 千五百米‖二分二八秒二 五千米‖九分二一秒一 一萬米‖一九分二六秒

張祐植 五百米‖四七秒四 千五百米‖二分二八秒四 五千米‖八分八秒七 一萬米‖一九分〇秒

李正德 五百米‖四五秒一 千五百米‖二分一八秒九 五千米‖九分八秒七 一萬米‖一八分五〇秒二

安重熙 五百米‖四七秒三 千五百米‖二分三四秒五 五千米‖九分二一秒一 一萬米‖一九分一秒五

張日弘 五百米‖四七秒四 千五百米‖二分二四秒三 五千米‖九分三七秒 一萬米‖二〇分二八秒

尹世植 五百米‖五七秒七 千五百米‖二分三六秒三 五千米‖九分一七秒三 一萬米‖二〇分一六秒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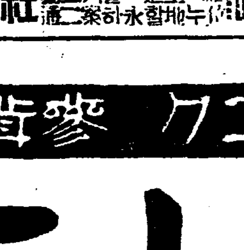
金壯煜 五百米‖五〇秒二 千五百米‖二分二七秒一 五千米‖一〇分九秒二 一萬米‖二一分三〇秒

運動競技

鴨江에遠征할 梨專孫孃

人事次來社

來三十一日에 鴨綠江銀盤에서 열리는 朝鮮對滿洲氷上對抗戰에 朝鮮代表로出場하는 梨花專門의 보배 孫仁實孃은 今二十八日午後七時四十分 京城驛列車로 梨專體操敎員朴奉愛氏引率아래 戰地로出征人事次로 二十八日午後 本社를訪問하엿는데 孫孃은다음과가튼所感을말하엿다



新義州로는 할러이라는바 孫孃은 우리女子氷上競技의水準이 滿洲에比하야떠러저잇슴으로 이기는것보다도 오히려 이번길에는 배울것이目的입니다 여러분의聲援에힘입어 끗까지最善을다하야 싸우겟슴니다 云云(寫眞은本社來訪한孫孃)

天氣豫報

槪況 七七二粍의高氣壓은國境中部로부터滿洲로퍼저잇고日本中部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도氣壓이놉다 黃海와東支那海에는적은低氣壓이잇다 北滿洲는晴雨滿洲及朝鮮은雪 關東州에는降雪이잇다 西日本은雨 東北地方은雪 其他는曇

豫報 今夜는雪模樣 明日은曇後晴

昨日最高 零下三度 同最低 零下九度一 今朝最低 零下五度 今日正午 零下一度四

副業도本業에 千代田本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照會次第代進呈 少資本으로 家庭에서 婦人도 할수잇는 副業 ...

恩給 京城府中學町一四 金星商會 電話光二七五八番 五年分以上恩給證券融通 案內書進呈

간기유체、경풍、설사、구토、뜨뜸에 일제 아보 京城藥局 京城府 振替京城二〇〇八 電話光三四七七 本舖 一圓‧五十錢‧三十錢

坚實工業 日常消耗品의 內外가 工業으로 家庭에서 할수잇는 大阪市北區 大同商事 電話川五五〇番

림질약 可驚할根治藥! 急慢性淋疾에 百發百中 藥價三圓試用分一圓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一二二九九番

信用잇는最高의會社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參十萬圓 株式會社 大阪市 內外

朝報案內 讓書店 中學校生徒用 外務 男子職員募集 求學生 地方志士 柳君 恩給 最大長期 京城府光化門通

蔘茸トニク 補血强壯劑 京城府立病院用達

蔘茸トニク는 人蔘、鹿茸、羊齒等의有效成分의비타민、구와아 鐵等을配合한것으로 美味、造血、滋養、强精作用이有하고 强壯劑中第一이라고 絶讚을 밧고잇습니다 꼭한번試用하십시요

平北厚昌道立醫院分院長 醫學博士 韓得璟 ㊞

昨秋以來約一個年間蔘茸トニク를 一般內科的衰弱症에試用하야 其結果補血强壯劑로서 가장優秀한製劑인것을認定하고、本劑의價效함을 推奬함 (十一年二月十七日)

醫學博士 玉豊彬 ㊞

蔘茸トニク는其組成에잇서 一般虛弱體質、腺病質、神經衰弱症等의患者에게最適切하고 女子産後衰弱과男子生殖腺缺落症狀(生殖器發育不全、勃起力減退、早漏)等에對하야 越等히他製品을 凌駕하는効果를認定함으로써 玆에本劑의卓効잇는것을推奬함

昭和十一年四月十日

醫學博士 橋本吉藏 ㊞

本劑는東洋醫學의靈藥이라고稱하는 人蔘、鹿茸及淫羊藿을主劑로하고 여기現代醫學의 滋養强壯劑를配伍하엿스며服用하기쉽고 副作用이업는 實로理想的强壯劑라고生覺합니다 予는本劑를우리産婦人科領域에 患者에게 試用하게됨을깃버하는同時에 左記成績을 公表하고 本劑를推奬하는바이다

蔘茸トニク適應症

虛弱腺病質、陰萎、早漏夢泄等의 生殖器衰弱、健忘早老、虛弱幼兒、病後衰弱、虛弱妊婦、産後衰弱、一般子宮病消化機能不良、發育不全의小兒、神經衰弱、食慾不振、萎黃症、心臟衰弱、心悸亢進、肺結核、脚氣、ヒステリー、眼精疲勞、貧血症、

蔘茸トニク供試品及醫學博士諸權威의 實驗報告書無代進呈

品切時는 本舖까지 御下命을願함 最近類似名稱品이만사오니 注意를願함

定價 五圓、二圓八十錢

京城鍾路三丁目 製造發賣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話光二一三五番 振替京城一九〇七番

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電話本局五〇二〇 振替京城四七五番

三越、丁子屋、平田百貨店外各地有名藥房에서販賣

蔘茸トニク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이제일이요

超스피ー드空中征服(공중정복)時代(시대)다 이사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선택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하도만흐니다른약에속지마시고 제일속하고안전하고 신용잇는 약구로벨을쓰시오

효력최고상 최득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ー루)만 도히 들엇고세계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전보담 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즘소태、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 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 (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심과신용을 엇기위하야장담하오니안심하시고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 (산증)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뇨두협착등에 좃코

二、이약은다른약과가티 지리하게오래동안먹고만급성간에오래된고질 만성증이라도 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 위장이약한분이만이먹어도 트림하나안난다는 말은효험본여러분의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만흔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악성에구원、만성긔타제증에오원 대하증、냉병기타부인병에오원、급성과부인오즘소태에삼원、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은삼십오전 (오원이나삼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광고와 틀니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振替京城四九五〇 電話光化門三三四一番

◎이건약은
신[illegible]이독판[illegible]
부[illegible]난사람[illegible]
말하[illegible]하오(다른약은[illegible])
◎하[illegible]수업다[illegible]
약이독판칠수박게
◎시[illegible]변된고질이[illegible]
누가[illegible]장이엿스[illegible]
신용[illegible]시오[illegible]
만히수[illegible]결국[illegible]
◎당신은하도만히[illegible]
약에[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경찰[illegible]
그런[illegible]이갑사[illegible]
로[illegible]주시오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태중에림질대하증에걸니면눈먼아희를난다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옥동자를나십시오

000851

귀사 월보독자소개로 칠개년된림질이 봄눈기티업서저
忠南保寧郡熊川面艾堂里 金淳熙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운권청천
群山府榮町一一八 獻力店 金洙泰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완치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鋼壽

작년에는 체중에 경오룰금춘에는림질을구로벨노아주근치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수년전 신효보고 만성림질에고통한점원 땀으로도수문
水月堂製薬所 李守哲

수년된 림질이 일주분으로 축효보와 국력선전중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遷

사오개월 고통한림질이 다나아서 친지에게광고
江原道江陵正町一五七 平江商店 主 梁才寬

고통에고통하던 림질이쪽 한갑에다나엇다
咸興府舊魚菜市場通 北鮮商會 林喆守

수년된 림질이 완쾌되여 신성당약이라면 다신용하게되
仁川龍岡町六六 全載昇

삼년된 림질이 완치되여 [illegible]
龍岡郡龍寧面梅鶴里 朴昌錫

십삼년된림질이 오원어치로 완치되어.
慶北達京郡立豐面池洞 金永方 李源明

오륙년된대하증이 일주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利川郡長院面片里 南國秀

자기나흔 효험으로 림질환자마다 권해
江界郡西面登公洞九九 土木講員 金丙柱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어 한제는반송
慶北安東驛前通 孫極壽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대한설명서를 도청구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柱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번영을늘축원
洪川郡邑望里 裵泰一

수백원업생 삼년된림질을 일주분으로곳치고귀사특약점이될예정
龍川郡內中面所前 龍巖藥業社 李亨根

림질환자에게 시용한바 효력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長湍郡藥面共濟醫院 金新鉉

귀당월보에서 보고 약을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德里邑外木川里 鎭一文

환자에게서시용하야모다나어서감사하게선전하는중
竹典甲二〇〇 (신전꿀) 竹興藥局 主 李延詔

생 쥐

다락가치 오르는 물가에 부억경제 대공황
더퍼노코 비싸게사서는 낭패다
물건을 싸게 사는 법

요사이 물건ㅅ갑슨 마치 바람을 잔뜩 불어 너흔 고무풍선모양으로 자꾸 자꾸 끗업시 올라 가고 잇습니다。 전에 사시든 그 것을 요량하고 물건을 사러 나섯다가는 봉변을 하게쯤 됩니다。 그런데 원낙 물건ㅅ갑도 안 올라 가는 것은 아니지오만은 더구나 간교한 상인들의 틈간으로 더한층 부채질을 당하고 잇습니다。 즉 이전 삼전쯤 올라간 것을 오전 십전으로 덧부치기가 일수요 애초부터 올라 가지 안한 것을 무턱대고 올려 밧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건ㅅ갑시 올라서 걱정인데 상인에게까지 속고서 어찌 지냅니까? 어떠케 해서든지 속는 것이나 면할 도리가 업겟습니까?

모든 물건ㅅ갑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더 심하게오르는 것과 그러케 심치는 안한 것과의 구별이 잇습니다。 위선 그 구별을아서야 합니다。 또 물건ㅅ갑시 오른다고 하야도 오르는 비률이 잇습니다。 그 비률도 알아 두서야 합니다。 물론 살림사리에 쓰는 물건은 미곡과 시탄이나 의복차이외 자조고려한 것이 만흔만큼 일일히 그런것을 알기는 힘드는 일이로되 철을 목재등 중요한 상품만 알면 그 나머지는 대개 미루어 알 수가 업지 안습니다。 본래우리 안악네들은 그저 싼대로 사고 비싼대로 사서도 모지 물건ㅅ갑세 주의하시지 안는 버릇이 잇는데 그것은 적어도 한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신 분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일입니다。

×

본래 다가튼 물건이라도 상점을 따라서 갑시 다소 다소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을 살 때는 여러 상점을 돌아서 그중의 싼 것을 골라 사야만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사이처럼 물건ㅅ갑시 크게 변동되는 경우로 말하면 각상점마다 가격의 차이가 아조 심할 수도 업지 안습니다。 그저 한 상점에서 물어 보고 거기서 떠퍼 노코 사서는 의외의 손해를 보지 말란 법이 업습니다。 또 어떠한 상점에서는 비누나 양말가튼 것을 일부러 밋지고 파는 대신 다른 것을 비싸게 팔아서 교활하게 손님을 끌려고 합니다。 한두가지 물건이 다른데보담 그 상점을 신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어 상점 저 상점 갑슬 알아 보고 다니는 동안에 적당한 물건ㅅ갑도 알게 될뿐이 아니라 비교적 신용잇는 상점도 차차 내게 될니다。 그래서는 매일마다 쓰는 물품은 조그만 공책에다가 적어 두어서 얼마나 나려갓다는 것을 일목료연하게 알도록 되어야 합니다。 장사치의 말하는 갑슬 그저업마 꺽그면 되는줄 아시지오만은 장사치들도 꺽길만큼 애초부터 더 부르고 잇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물건ㅅ갑슬 대강 짐작치안코서는 속아서 사지 안할래야 안할 길이 업슬줄로 생각합니다。

37년식난로

얼마전 영국론돈에서 열린모던건축전람회에서 여러사람의눈을끈것이잇는데 그것은 최신식난로입니다 전기스토-브와 석탄스토-브겸용으로 되어잇고또 거기에 전기시계「텔레비슌」까지 장치되여잇습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만 주의하실것한가지는 밧게나서서 찬바람을쏘이게되고 또 별안간 더운난로엽헤나 방바닥에안게되며로 입술이 터지기쉬운죽 입술에는 콜드크림을약간발르시도록하십시요

헐목도리수명은 손질여하에달려
몬지와습기는검물

지금이야말 헐목도리가 소용되는때입니다 밧게나갈때마다 목두르고 나가는까닭에 어느때는 눈비를맛기도하며 몬지를 떠퍼씁니다

헐목도리는 겨울과 봄사이에 잘간수하지안호면 모조리 버리게됩니다 그러나 헐목도리의수명은 대개가 요사히 씨-즌에 손질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데서 결정되고마는것입니다 갑시 비싸다고 반듯이 오래쓰는것이 안이라 헐한것이라도 손질을 잘하면 오래쓸수잇게됩니다 헐목도리손질로는 위선 헐목도리를 빗기는깨끗한 솔이엇서야합니다

그리하야 출입할때마다 반듯이 이것을가지고 몬지를 헐도록 해야합니다 흔히 네푸타링가튼것을 너허두어도 버레가일게되는것은 몬지를 잘떨치못한까닭입니다

헐이 긴것은 횡빗으로 잘빗겨서 헐이 저절로 풀러서도록 해주지안흐면 안됩니다 목덜미에다이는데는 잘따려서 헐이빠지기쉽습니다 그러므로 놉이것에 류의하지안호면안됩니다 그러고헐목도리는 습기가 제일위험합니다

비나눈에마즈면 습기가 채이기전으로 즉시마른수건으로 잘닥거서 더운데말이도록 하지안호면안됩니다 그러나 헐은습기를 실혀하는동시에 열을 실혀합니다 습기를말니기위하야 화로가에나 스토-브에 쪼이는것은 더욱 삼가지안호면안됩니다 해비치굿세게쪼이는것도 조치못하므로 이것도 조심하지안호면안됩니다

폭이 곱시다하중이 어렵습니다 한 만성으로서서히 옮겨오는수도 잇스니 어떠다고단번에알기는 어려우나 적우간이전에 업던증세가보이거던 속히의사의 진찰을바뒤될수잇는대로 전문의사에게 보이어야합니다 그것을 그냥두다면 만성이되여서 자궁내막염이나 자궁경련등을 이르켜서 임신하지 못하게되며 빈신불수가 되는수도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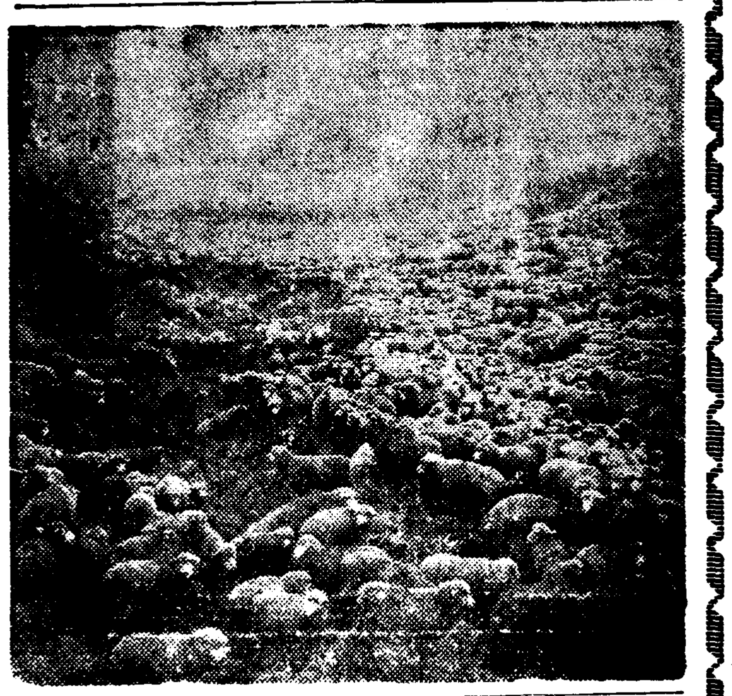
진시황도못구하던 불로장생의 선약
과학의힘으로 만드러진 "남성홀몬"이야기

사람이 죽지안코 얼마던지살수는업는가? 이것은 옛날부터 누구나 한번식은 생각해보던일입니다 유명한 진나라의 진시황은 불노장생하는선약을 차저서 동남동녀 삼천명을 봉래로 보내엿든일도잇섯스며 그의 권세가닷는곳까지 이것을 차저보앗스나 맛츰내 뜻을 이르지못하엿습니다

아모리큰명예나 부귀라하더라도 불노장생과 만병통치에 비할수업슬만큼 이것은 인생구극의 소원이 안일수업습니다

그러나 과학의힘은 위대하여서 맛츰내 구할수업다고하던불로장생법도 한거름한거름 성취의역에 달하고잇습니다

비타민의 발견과 아울너 이것이가능하다는 암시를어든 과학자들은 맛츰내"홀몬"이라는 새로운것을 발견하게되엿습니다 홀몬중에는 부신(副腎)홀몬 당뇨병(糖尿病)홀몬 갑상선(甲狀腺)홀몬등이 발견되엿는데 최근 오래사는 비법의열쇠를가



지고잇는 남녀생식선(男女生殖腺)홀몬이 발견되지안코 잇섯습니다 이러한것을 발견해내기위하야 세계과학자들은 천신을잇고 연구를싸어오던중얼마전에 일본리화학연구소(日本化學研究所)의 령목박사(鈴木博士)가 이것을 성공하게되엿습니다

"남성(男性)홀몬의 력사는 지금으로부터 륙십년전불란서의부론세카-르가 원숭이의신에서부터 짜낸것이처음 시작으로 각국에서 말과소의 낭신에서 이것을 짜내게되엿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람이먹으면 효험은잇스나 분량이원체적으므로 갑시 여간 비싸지아헛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도을만히가저야만 이것을 구할수잇섯는데 금번에령목박사가 발견한것은 비타민제조에서 암시를엇고간유(肝油)에서비타민에이(A)를빼내는데 부산물로 나오는『코레스테링』을 화학적작용으로하야곰 남성홀몬을 만들게되엿습니다。

『코레스테링』은 양털에잇는 기름속에 다량으로 드러잇는데 재래에는 양털을 기름기위하야 소-다로 써서 빼나여버리던것으로 양털을 소-다에 찌면 그물이 죽 남성홀몬으로되게되엿습니다。 메물속에서 불로장생하는선약을 발견하게된 셈이며 이것을모르고 옛날부터 그다지구해보아도 차줄길이 업섯습니다 메물속에서 나오는 불로장생의선약인남성홀몬은 갑도헐할뿐안이라 효험도확실하야 널리리용될것입니다

잔털은 실로뽑고 눈섭은 쪽쩌개로
면도질은 살결에해롭다

눈섭이나 잔털을 면도로베이는것보나는 쪽쩌개로 뽑아버리는것이 조흡니다 눈섭가튼데는 살결이 지나치게 보드러우므로 잘못뽑으면 아퍼서 곤난합니다 그러므로 눈섭아래위에다가 콜드·크림을 담북발러서 그우에더운타올로 한참추기면 털구멍이 모두널버지고 부드러워지게됩니다 이때에한개씩한개씩 뽑의면 아프지도안하고 위생에도 대단히 조흐며 잘뽑히게됩니다

이마에나는 잔털은 일일히뽑기가 성가시게됨으로이러한 방법으로 털구멍을 열니게한다음실을꼬아서 양겹으로 감아서밀면 털이 실에감기여서 잘빠집니다 이법은 옛날조선서 행해나려오던것입니다 면도질을하면 살결이거치러워저서 조치못합니다 털을 모조리 뽑은뒤에는 애스트링젠트로-손 과가튼털구멍메는 화장수를 바르도록 하는것이조흡니다

남편의잘못으로 옴겨온몹쓸병
생각나는이는업는가?

술이취하면 평상시에는 꿈에도 생각지안는일을 꼬잘하며옵코 그른것을 판단치 못합니다 이것은 술속에잇는 알콜이 대뇌(大腦)의 억제작용을 마비시킨까닭입니다。 섯달금음으로부터 신년을 통하야 여러가지 연회로 말미아마 술을만히 먹은판게로 평상시에는 대단히 온전하던남편도 어떠케된심인지 마음이 달뜨고 따라서 술김에친구들의 유인으로 그만 조치못한 처소에 출입하야 무서운성병의 전염을 바든수가 잇는것입니다 남성이 불결한 장소에 출입하야 어더온성병은 그안해되시는 분에게 즉시 전염되고말것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성병의전염을 바덧다면 오시시 추어지기도 하며 열이나고 국부가아

短篇小說 抗進記 (3)
金廷漢 作 鄭玄雄 畵

(그러한 칠손의 돈을 빌어 엉뱅이공부를 하다니?)

두호는 생각이 딴곳으로 돌아젓다。——안달방이 칠손의 발꿈가튼 돈을 보고 침을 흘리고 따르는 형의 애도 끈도 업는 놀놀한 태도가 새삼스럽게 더미워젓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말이 업다。마치 서로 몰으는 사이처럼。

비도 잠간 끄치고 첨하끗 낙수물만 뺑、뺑……。그러나 바람만은 여전히 사나워서、퐁퐁우에 시달려 끈틀어진 호박닙 강낭닙들 이리저리 뭉강스럽게 옥대긴다。

날은 이미 훤하게 다새엿다。

아버지는 문득 들일이 염려되엿든지、우장사갓을 차려가지고 사립을 나서고、어머니는 둠은 몸으로 밥을 짓느라고 물을 길러온다、축축한 나무에 불을 일운다해서、혼자서 바쁘다。

그러나 두호는 궁둥이가 천근이나 되는듯이 연해 그자리에 걸쳐안저서 얼른 일어나지를 안는다。

(이놈의 누에들을 다어찌나?)

생각은 더욱 어수선 해진다。

(그만 죄다 쓸어다 아궁이에 처너어버리고말까?)

뻥뻥、뻥뻥하는 낙수물소리가 천리 박게서 오는듯 햇다。

아침을 먹고나니 날이좀 드는것 갓다。

그러나 장마때라 잇다금 주룩주룩。

그래도 두호는 아버지와 함께 대망주리를 둘식 포개어 께에 걸매고는 실는듯이 집을 나섯다。

때마침 태호와 영애가 한우산을 가치밧고 무어이지 웃고짓거리며 집을 향해걸어오는길이엿다。

두호는 못본체 지나려다 영애를 향해서

「우중에 미안하오 그렁」

영애란 이처녀는 거이 날마다 도원이다。보통 누에선생이라고 부르는。해말숙한 얼굴에 날씬한 키가 열아홉으로서는 익은편이다。

「뽕따러 가세요?」 볼을 약간 붉히며 웃는다。

「녜」

「산책——?」

「그럼요 원걸 바레 뺑이 잇서야죠」

「애그참 이 비오는데……!」

영애는 동정하는 비조로 방실웃는다。형은 무색한드시 말이업엇다。

두호는 속이 조금 몽클해스나 도라도안보고 아버지를 따럿다。

그러나 머리속에는 점점이상한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햇다。

(아마도 조금 수상한걸!)

(하지만 그럴리야 잇슬라고? 그러나 꼿 부인햇다。—— 영애의천성이 그러치、원래 어떤 남자를 대해서라도 과히내외를 하지안흔뿐아니라 조금만 친해저도 부끄러움업시 잘짓거리는 편이거덩 그리고 또 형으로 말하드라도 나와 영애사이를 바히 모르지는 안흘것이니깐……!)

두호는 이러케 제맘대로 판단을 해봣스나 결국 혼자생각이지 그것으로 그사실이 완전히 해결될리는 만무하엿다。

이상한 생각은 연방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의 젊은 마음은 불현듯이 더뒤설네엇다。

「그럴리 업지!」

두호는 부지중 이러케 중얼거렷다。

「왜? ——뭐가 어떠케 돼건데?」

아버지가 의아스럽게 돌아놀때야 그는겨우 정신을 차린다。

「아무것도 아니여요」

당황히 시침이는 떼엇지만、절로 얼굴이 확근햇다。

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랏스나 구태여 파고뭇질 안햇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잠잣코 붉은 산길을 걸어올랏다。

물론 두호는 부질업는 생각을 되푸리하면서。

잇다금 미친 날세가 개오줌 싸듯이 구진비를 질금거렷다。

그럴때마다 그들은 허처거리는 사갓을 더욱 내려숙엿다。

이러케해서 한시간 남짓이걸은 뒤에 그들은 겨우 목적한 산의 중툭가까히 이르럿다。거기서 그들은 몸을더욱 단돌이 고치고서 비로서 일을 시작햇다。

허리와手足이 어름가티冷하고 月經不順하고
대하중이흘으는분은 반듯이、이療法을實行하면根治도되고姙娠까지할수잇습니다

月經이라는것은 女子에게限하야 十四五歲때부터 四五十歲까지 每月一定한時日에 子宮에서 生理的으로出血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普通健康한 女性의月經은每月一定한時日에 四五日乃至六七日間이고、月經時에도別로 苦痛이업는것입니다 그러나月經時에아래배가압흐고 두통현긔도나고 허리와手足이冷하고 여름이나겨울이나감긔에 걸리기쉽고 가슴이두근거리고 血色이납브고 성미가急해서숨차고 月經以外에 子宮出血하야 貧血症이되고 배는곪흔데 飮食은먹기실코 억지로좀먹으면 消化가 잘되지안코 얼굴에화색이업고 주름살이잡혀 더보기실케될뿐아니라 月經이一定한時日에 나오지안코、分量이만키도하고적게도하며 대하중이흐르는분은 子宮病이잡복되여서 月經이不順하고대하증이흘으는것이니이러한婦人은 애기를배지 못합니다 結婚한지 三年五年、十年이지나도록 애기를 못낫는분은 틀림업시子宮病이잡복되여月經이不順하고 姙娠도못하는것이니하로밧비子宮病에 特效가잇다는 好評과信用을밧는 內服藥命之母를 服用하시기바라나이다

여긔서婦人의月經不順과子宮病대하증을根治하게하는 內服藥『命之母』를 服用하면 얼굴에화색이도고 주름살이 떠지고 손발이 더워지고 顯著히 淨血作用을하야 體內의毒素를全部滅殺시키고 病獨해진細胞를 回復시켜주는 結果、血液이 淨潔하게되는同時에 女性의 호르몬이 旺盛하야지며 不順하든 月經이順調롭게 되며 대하증이 根治됩니다 애기를 못낫는婦人의 十中八九는 月經不順 子宮病대하증으로하야 애기를못낫는것이니

今日이新聞을

─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 붓처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ㅡ笹岡藥房으로보내시는분에게 七大醫學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詳細로알기쉽게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 說明書를 누구에게던지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바삐申込하시라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笹岡藥房에서 朝鮮婦人에게衛生智識을普及시키기爲하야一家庭에 한券식無代進呈하는것이니 藥을注文하지 안는분이라도 申込하기 바라나이다

은 世人에好評과 本舖에 到着한愛兒의 喜悅과 體狀이 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 子宮病대하증 不姙症가튼婦人病으로 苦痛하는 婦人이잇으면 하로밧비 命之母를服用하고良効에 全快하기바랍니다 特히朝鮮日報讀者에게限하야美冊婦人病自宅治療書를 無代進呈하고 藥을先金으로注文하는분에게는 本舖에서送料를負擔하야實費로보내드리오니 絶對信用하고 一次試服해보기바랍니다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하지만 本舖로直接注文하고자하는분은 藥代金을小爲替나振替東京五〇番으로 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지만藥量을 指定못하는분은 病勢만자서히記入해서 보내시면病勢에適當한藥을代金引換으로急送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主治効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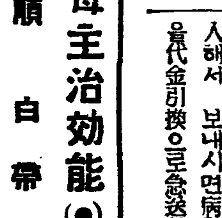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ㅣ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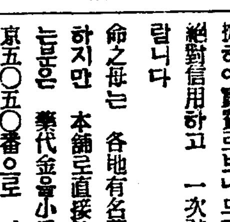
腦神經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有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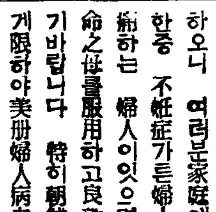
=藥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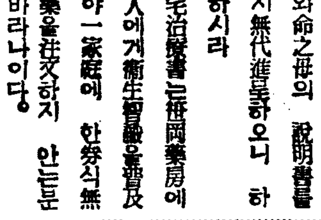
六日分 壹圓
十三日分 貳圓
二〇日分 參圓
三五日分 五圓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振替東京一五〇番
電話京橋六八七番









明色クリンシングクリーム

一罐으로 겨울동안거칠을 모르게된다

家内中で使へます
明色구린싱은 用途가 非常히廣闊하야 一罐을사면 一家族全部가쓸수잇다

おヒゲ剃り後に
面刀後에 明色구린싱을 얼굴에 가볍게 문질너 까-제나 脫脂綿으로 씨처내면은 溫水나 冷水로 얼굴을씻슨때와는 比較도못할만큼 얼굴의 바탕부터 어여때지고 아모리 面刀를 하여도 皮膚가 거칠念慮는 조도업다

お子方の洗顔に
弱하고 거칠기쉬운 小兒의皮膚─洗顔은 明色구린싱에限한다 溫水도冷水도 全然필요업고 이 구린싱을 조곰묻지르고 脫脂綿이나 까-제로 씻처내는것으로 얼굴의 바탕부터 어여때저서 엇더한 寒中에라도 全然 거칠줄을 모르게된다

手·腕のアレ防ぎに
洗濯 설거질과가튼 일을하는분의 손이나 팔뚝은 언제나 거칠기쉬운터이라 이러한분은 朝夕두번가량 明色구린싱을 손이나팔뚝에 문지르고脫脂綿이나 까-제로 닥는다——이것만하면은 아모리 치운때라도 손이나 팔뚝은 거칠념려가업다

華美훌륭한 三重作用으로 거칠지안는어여뿐살결을創製

(一) 더러워진그대로 皮膚의거침을 막기위하야도 充分한 効果는어들수업다 明色구린싱·크림은 조곰문질러서 씻처내는것으로 먼저 그特有의 强力한淸掃作用에依하야 皮膚의 밋바탕부터 깨끗하게 淸掃된다。

(二) 同時에 이 크림의獨特한 美容成分이 活動하는것이다 皮膚가 말할수업시 淸潔하게되므로 美容成分이 가장 効果的이여서 皮膚의 深部에까지 充分하게 먹어드러간다 美容成分이 自由自在로 活動하는 이 合理的作用

(三) 조치못한 化粧下를必要로하는 겨울에는 特히 살결이 거칠다고하는데 明色구린싱으로 洗顔을하면 化粧下가업시 어여쁜살결을 만드는化粧을 할수잇슴으로 아모리치운때라도 살결을거칠게하는 念慮가업다

살결거칠에 肌アレに 구린신의三重作用이大評判!

學藝

中篇小說에對하야 —그量과質的概念에關한試考—

崔載瑞

一、中篇小說의量的概念

雜誌에 每月發表되는創作中 中篇小說이 數로보나 質로보나 大端히優秀치안혼가하고 생각한다 中篇小說이라는말이 어데서 언제부터 始作하얏는지 筆者는몰른다。그리고 現在 作家들이 어떤槪念을가지고 中篇小說을쓰매 또編輯者가 어떤態度로써 이것을 取扱하는지 그亦筆者에겐分明치못한일이다.

中篇小說이라는「짠르」가 우리文壇에 아직成立되지못하얏다는것이 그實情일런지 모르겟다。그러나 昨年一年中에 發表된創作中에서 中篇小說이라고일컬어진 作品이 多數이엇스며 또한그것들이 獨特한 主張을가지고 우리의 考察을 要請하고 잇는것은 더할수업는 事實이다。여기서 中篇小說中優秀한멧개를들어 考察함은 決코 부질업슨일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다만 이것은 筆者의 한개試案에 지나지못함을 附言하야둔다.

中篇小說이란 長篇도아니고短篇도아니고그中間的 作品이라고定義한다면 읽는사람은 嘲笑를禁치못할것이다。그러나 小說의長短을 標準삼을때 그것이中間的存在임에 틀림이업다。다만 그中間的이란具體的으로 얼마나한程度이냐하는問題에 이르러선意見이區區할것이다 대관절

長 篇과短篇은 數字的으로 定義되어잇섯든가? 寡聞한筆者는 이를記憶치못한다。外國의例를 든다면 英國가튼데선 노-블(長篇小說)이라면 적어도 單語六萬語以上을包含하여야되고 『쇼-트 스토-리』(短篇小說)이라면 三萬語以上을넘어서는 못쓴다는 不文律이 實行되는듯십다。쪼이스의『우리시-즈』와가티 四十萬語以上을가진超長篇도잇고不過四五百語의掌篇도잇기는잇지만 長篇이라면十萬語內外 短篇이라면二萬語前後가 平均한數字이다。

그러면 中篇은어떠하나? 英國에도 「노-베렛트」라는말이잇기는하나 이것은 佛蘭西語「누-벨」을 英譯하얏슴뿐이지 英國文壇에나 出版界에 이中篇小說이 明確한「짠르」로서 取扱되엇는것은아니다 佛蘭西에서본다면 「누벨」이란 『콩트』와 로망새에드는中間的文學作品』이라고 規定되어잇다 語數로써말한다면 四萬語乃至五萬語가 그

本 領인듯십다 『월라·캐더-』의『迷惑한女子』(四萬語) 『앙드레·지-드』의『좁은門』(四萬五千語)等은 中篇小說의 代表作일것이다。

이것을 朝鮮말로飜譯한다면어떠케될까? 長篇六萬語는 諺文으로大略十四萬四千字가되고 短篇三萬語는 그半數七萬二千字假量될것이다。그리고 中篇의範圍를 四萬乃至五萬으로잡는다면 한글로飜譯할때 九萬六千字乃至十二萬字가될것이다。또이것을한글雜誌에印刷한다면 二段組一頁에 普通一千二百字가收錄되니 長篇六萬語는 百二十頁에飜譯되고 短篇三萬語는 六十頁에 收錄될것이다。이것은 最低限度와最高限度를말함이니 그平均을잡아말한바와가티 長篇을十萬語로친다면 한글飜譯이 二十四萬字雜誌二百頁의 分量이고 短篇을 二萬語로친다면 한글飜譯이 四萬八千字雜誌四十頁의 分量이다。그리고 中篇은 八十頁乃至百頁를 차지할것이다。

文壇의破壞와 참다운新文學 (下)

吳章煥

오랜 동안 肉體勞働과 知的勞働의分離 分業은 不善한人間들에게 그弱點을 利用當하엿고 乃終에는 그것이 習慣化하야 利用하는것이 當然한것처럼 여겨져섯다。勿論 그영향으로소위 文壇이라는것도 그러한 方向으로흘러고 또 그것이絕對的 勢力까지잡엇든것은 속일수업는 事實이다。우리의 生活이 벌서 이와가튼矛盾속에서 進行되엇기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새로운文學의 主唱을 必要로한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살면서 물을모르는것과가티 人間도 人間을 아는사람이 얼마안된다。요사이 智識人이라는것은 대개가 人間의義務를 모르거나 또 그義務를 숨기려하는것인것가타 「人間도 또한다른 動物과가티 飢餓와 추이에서 죽지안키爲하야 不可不 일하지안흐면 안되도록 創造된 存在이다。그래서 저를기르고 暑天에서 몸을 保護하기爲한 이活動은 他動物과 다름이업시 人間에잇서서도 또한 本來는 苦痛이아니라 깃거움이엿다。그러치만 사람들은 自己네들의 生活을 저는 아모것도 안하고 제代身으로 남을 뜨들겨부리며 저는무엇을해야 올흘는지몰나 심심해지고 그結果는 제심심푸리를하기爲하야 닷는데까지 愚劣한것과 고약한것을 考案해내고 또하면그사람들의 代身을 일하는 만흔사람들은 제힘以上으로 勞働하게되야 저때문이아니고 남때문에 일하게되는것으로 그일에 실증을 느끼게된다」고 톨스토이는 그의 日記속에 이러한말을하엿다。

이말은 어떠하나마 人間의義務에對하야 저촉되엿다 人間이 勞働을 分離、分業하게된 原因은 처음은 서로편의를도웁기爲한 일이엿든데 一個의 狡猾한營利는 이것을 뒤집어놋다。

人間의 社會란 各自의便宜를 爲한 集團生活이엿것인데 어찌하야 人間들은 自己의義務를履行치안는가! 그리고 대체의人間(그當時當時)支配者들은 人間을 爲한 即自己가 集團生活을하는 義務上의 行動을 이저버렷나! 그것은 終局 우리의눈아페 利己의根性이떠나지를 안혓기때문이엿다。

나는 생각한다。人間의 지혜라제 義務까지 無視하여가면서그 못해서된 快樂을느끼기爲한수단은아니라고 그것은 우리가모두보고들은거 그러한 완곡된관념이요 習慣이엿기 때문이지만 이러한것은 하로바삐 버릴必要가잇다。

우리는 어찌하야 우리의義務를遂行하는데에서 快樂을느끼지못하는것이냐!

人間의 義務! 即 自我만을 버린 人間全體의 福利를 爲하야 文學도 存在하는것이 올흔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에 내가 말하는 新文學이란 過去의 잘못된 根性(지말的인)을 버리고 널리 正常한 人生을 爲한 文學이 新文學인줄로 생각된다。

×

「現實—自然과 社會의 모-든 現象—은 藝術의 題材로서 選擇될 可能性을 가지고잇다 그래서 詩人이 어떠한 題材를 選擇하여오든가 또는 어떠케 그것을 處理하는가하는 段或 無意識이엿다고하드래도 그 詩人이 現實에 對한 態度에 依하야 決定된다」고 森山啓는 말하엿다。

事實 그것은 우리가 生活하는속에 그文學이 나오기때문이다。기러기 때문에 우리는 詩人이나 作家가되기前에 먼첨人間이될 必要가잇다。

作家들中에는 흔히 純粹한藝術的인作品을찾고 無黨派的인것을 主唱한다。하나 이것은 職業의技術化로 因하야 생겨나온 誤謬以外에 아모것도아니요 따라서는 그들의 좁은意見과屈從은 現實에矛盾과合流하기에 가장쉬운것으로되여버린다。

우리는 더문이어서 重壓되는 現象에만어스러워 失望、아니나아가서 絕望以外에 希望과反省을 가즐거을도업마잇지는안헛다 絕望! 그곳에서더나아가지못하는것은 屈從이나 自殺이다。

나는 이機會에 말하고십다 이때지의나는 絕望과深淵의구렁에서 버서나지못하고 또모를悲鳴을부르지즌 靑年이엿다고。하나 나는 다시希望을갓는다。그것은 내가나의 理想속에서버서나 참으로 人間의義務를 알엇기때문이다。나는이제부터라도 질거이 人間의義務를 履行하기에努力하겟다。내가 이제부터쓰라는 文學은 나의 義務를爲한文學이다。나에게잇서서는 이것이 眞正한 新文學이라고생각되고 또이것을 밋으려한다。

—了—

—隨筆— 病床迎春記 (一)

金裕貞

햇빛을 보는것은 實로 두려운 일이엇다。

햇살이 퍼질 때이면 발동안에 기피 潛在하엿든 모든 病菌이 現實로 向하야 活動하기 始作한다。萬一 自由를 잃어몸이 여기에 떨어지 못한다면그건 참으로 悲慘한 일이다。빼가 저릿만지 또한 슬픈 일이엇다。

햇살!

두려운 햇살!

머리우까지 이불을 잡아 들쓰고는 暗黑을 찾는다。마는두터운 이 이불로도 종음이 새여드는 光線은 어찌를 길이업다。두손으로 이불을 버쩍거올렷다가는 이번에는 버개까지 얼려지고 비어진 구녕을 픽 여머어본다。간밤에 며번을뒤 추겨놋든 暗黑으로 밀미어마 키킈한 냄새는 코를 찌른다。감을라고 강울라고 無慾히 애를써보앗든 눈에는 睡眠대신의 눈물이 솟아오른다。그뿐으로 눈꺼풀이 아물아물할때에는 그래도 필연 흙하으로 光線이 새여드는 모양이다。열흥적은 빗도 비치려니와 우선 잡을자야한다。한밤동안을 먹거니 안저새고난 몸이라 늘치근한것이 마치 亂打를 當한 사람의 늘어진 몸과도 갓다。무엇보다도 體驗에는 잠을 자야 할것이다。잠이다 잠 몸을 이쪽으로 몰려눕히고 네보담곳이 탐스럽게 코를 골아본다。이러케 생코를 끌다가 자칫하면 지겨 단잠이 되는 수도 업지 안타。잠을勤蕃하는것은 喜히 머리에 얽힌 幻想과 混亂의 暖昏 그러고등을 누르는 무거운 頭痛、그놈이엇다。이모든걸 한번 헐어보고자 되도록 소리를 노피어코를 끌아본다。

그러나 에헤、이건 다 뭐냐 갯적은 어린애의 죽이 아닐가 아무리 코를 끈대도、새벽닭을 기려오는 물장사의 울지게 소리보다 더 노플 수는 업슬것이다。누구에게 희를 내는것도 아니련만 눈을 뚝 부릅뜨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 안는다。이불을 홱 제처던지는 서슬에찬바람이 일며 땀에 물은 등어리에 소름이 쭉 끼친다。기침을 쿨룩어리며 벼개로 向하고 안젓채

「뒤、뒤」

이러케 虛弱한 音聲으로 홀로중얼거린다。그러면 여페서자고잇든 조카가 어느덧 그속을 알아채리고 방그로 나아가 얼른 新聞紙를 들고 들어온다。그우에 新聞紙를 깔고、消毒藥을 뿌리고 하야 방한우서에 노아주며

「지금도 배 아프서요?」

「응ー」

왜 이리 배가 아프냥 줄대여 솟는 설사에는 몸이 척척 휘인다。어제는 나제 네번、밤에 세번、낫 밤으로 泄瀉에몸이 녹앗다。지금 잠을 못잔다고 물장사를 탓할것도 아니다 어찌면 터지려는 泄瀉를참을라고 애를써 이마에 진땀을흘린것이 나뻣든지도 모른다。

아、아、너무도 單調로운 行事 어떠케 이 뒤를 안보고 사는 道理가 업슬가。痔瘻에 泄瀉는 크게 禁物이다。그러나 願念의 苦痛보나는 每日 똑가튼 形式으로 치르지 안흐면 안될 單調로운 그 動作에 고만 寂寞하고 만다。그러다고 마달수도 업는 일、남의 일이나 해주는듯이 찌르퉁이 뒤를 까고 안저서

「얘、오늘 눈 오겟니?」하고 입버릇가티 늘 하는 소리를 또 물어본다。

조카는 미다지를 열고 天氣를 이윽히 뜨더본뒤 삼촌에게 失望을 주지 안코자하야 자세히 눈의 모양을 차저보는것이나 요즘 日氣는 너무도 조앗다。

「맑을 날가트니 구름 한점업네ー」

이러케 혼자서 쓸데업는 不平을 吐하다가는

「오늘두 눈은안오겟서요」하고 퉁 죽은 대답이엇다。

눈이 나리는걸 바라보는것은 요즘 나의 唯一한 기쁨이엇다 눈이 나린다고 나의 마음에 別段 所得이 잇슬것도 아니다。눈이 나리면 다만 검은 자리가 히게되고、마른땅에가 어름이 얼어부튼 그뿐이다。요만한 變動이나마 自然에서 차자볼라는 가냘픈 慾望임에 틀림업스리라。

이러케 기다리고 보니 눈도 제법 나려주질 안는다。이제나저제나고、이불속에 누어 멀뚱멀뚱 굴리고 잇는것이다。아침나절에는 눈이 곳 바루나릴듯이 날이 흐렷다가도 슬그머니 벗겨지고 마는건 애타는 노릇이엿다。二十餘日前에눈발을 날리고는 그후에는 작도 업다。

學生作品

—隨想— 生活의沈澱

普專 趙正得

해만바꾸어도 사람은무엇인가를느끼다。그럼으로 내가十四年間의學窓生活의終幕에서 무엇인가를 느꼇다는것은 極히自然스러운일일것이다。사람은 한개의契機에當하여 過去를 反省하고 未來를展望한다。이럴드면履歷書를또박또박쓰다든가 就職依賴狀을 가지고부즈런이차저다닌다든가 하게되면 自然만흔것을느끼게된다。哲學을思索한다든가 地代論을論議한다든것과는판판이 絕對地代說도무슨說도 벌서現實과는千里의懸隔이잇는것을 차츰차츰 알게된다。그러면 幻滅이다。

나는 就職依賴狀을가지고 거리를헤매인다。차저가야할名士의 邸宅을 차저그門前에서 數分間의 焦燥한躊躇를 느낀다。精神을 가다듬고한번 深呼吸을하고 操心스러히 벨을눌른다。書生에게굽신거리고 張本人의 外出의 宣言을 밧고는 名啣한장의傳達을 依賴하고 문득한숨을내려쉬우는 나를 自覺한다。이러한일을서너번 되푸리한다음엔 넓은房에 案內되고 드디어 冷血動物처럼 아쉬움게 배아튼 차디찬 言辭를 우박처럼 무릅쓰고 그 크나큰 大門을 나와서는 거침업시 거닐은다。찬바람이 이러케 내뺨에 따갑게 느긴적이 잇섯슬가? 이것이 現實이다。現實이니까 肯定하자。내 스스로에 對한 命題를 나는 飜弄한다。그리고 삼키려고 애쓰나 목에 걸려서 나는 苦悶한다。소가리 銳하게 살수잇섯든들 사람은 幸福스러웟슬것이다。그러나 人間은 感情을 가진 動物이란 唯一의 悲哀가 天賦되엿다。내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뭉게뭉게 안개처럼 피여오른다。그리고 그 안개가 내온몸을휩싸버린다。나는 그안개를 잘잡피지를안는다 나는 漠然한焦燥와 悲哀를가슴에품는다。

十燭光의 電燈이 떨고잇는 간房에서 綠色한壁紙를 바라보고 이따금스치는 바람이비저내는 문풍지소리의 싸늘한感觸이 이 神經質的인 銳敏性만을 가즌 白面書生에게는 한개의恐怖이기도하다 모-든것이 아득하다。

現實에 幸福을 어들수업는 사람은 未來를 그려본다。未來는 꿈인까닭이다。젊은사람의未來가 한개의靈氣樓라는것은 얼마나큰幸福이겟느냐? 그러나 未來에對한꿈을이즌者는 무엇에幸福을求하겟느냐。그것은 必是過去임에틀림업스리라。現實을 謝絕한過去속에서 幸福을차즈려는젊은이는 [illegible]

다니타니깐 普通學校를다니고 노리깡을부저서보고시퍼하는 好奇心으로 또는華盛頓처럼도 되리라는意圖로 中學을드려와 植物採集 昆虫採集에 신이나서 날가는줄을모르고 지내든 華盛頓의 꿈은 그가로얼수잇섯든 現實이깨워버리고 野營에 가까운 情熱을가지고 오직 社會의改造와民衆의幸福을爲하야 싸우리라고 盟誓를하든 者가지난날의 나의 모습이엿스니 이얼마나 唐突한井中蛙이엇든가! 眞理의 使徒란 美名아래 眞理를爲하야는 죽엄조차 두려워하지안흐리라는 이러한 勇氣를「그때는 가젓스나 至今의나는죽구멍을 차즐形便이니 이런經緯가 또어듸잇단말인가? 無思慮하게 無分別하게 敢히말할수잇섯든 그때의 情熱을憧憬도하면서 蔑視도하면서또한至今의내自身이얼마나 안타까운지모르는다 이것이 한개의파라독스임에 틀림업스리라。조그마한 理想은 나의情熱을 까거내인 「滿足」은 무엇이엿든가? 그것은 내自身인에를 엇든것이지만 내生活의 不充實에 틀림업겟지만 그럿치만 꼭 그뿐이엿슬가? 回顧는 그것이原則인것처럼 失敗뿐이다。失敗된 過去의所產이 이쓸쓸한 現今의 人生觀이란말인가? 나에게는 눈물만이 잇다。懺悔의 눈물인지 그러치 안흐면 한쪽의 良心과 情熱이 비저노흔 눈물인지? 모싸이크의 悲哀! 雜種의 슬픔이 나에게는잇다。나는 벌서 純粹한것을일헛다。나에게는 아라부말도 당나귀도안인슬픔이잇다。이最后의 한쪽의 情熱만이 淸算되는날은 煩悶이 업서지나? 苦痛은 生과 永遠한것인가?「生」 그것이 苦痛의 出發이라말하는 哲人도 업스니 苦痛은 眞實로 떠러지지못할宿命인가? 그러면 人間의 幸福이란 언제나苦痛을 內包하는것일까? 그러치안흐면 瞬間의 幸福이 本質的인 苦痛을 캄프라-지해버리는것일까?

科學

生命의秘密 (二)

모든生物學研究의길은 細胞로通하고잇다

지금부터 二世紀前、複雜한 顯微鏡을 發明한「안톤·반·류ー웬호ー크」氏는 泥濘中으로부터「로티파ー」라고하는 微生物을 取出해서 이것을 五個月이나 硏究室內에放置해두엇다。그結果「로티파ー」의 微生物은 말러서어떠한方法으로 實驗해보아도 벌서死滅한것이 確實하엿다。그런데 그뒤「류ー웬호ー크」氏가 이것을 水中에 投入해본즉 「로티파ー」는 그몸을 불리면서 蘇生하엿다。그後다른實驗者가 微生虫의 하나인線虫한종을 말려서 保存햇든바 이線虫의 平均壽命은 約十個月이나되는데 不拘하고 二十八年後에 이것을水中에넣어주니까 即時에 蘇生한事實이 잇다 醫學史上에잇서서도 [illegible] 하지 十八時間後에 內臟이活動을 回復한 實例가잇다。

生과死와의 境界線은 무엇인가 生命이라고하는 小單位 한물건의 正體는무엇인가 細胞가 死滅한때 거기로부터빠저나가는것은 무엇인가 五百年에 亘한 硏究도 아직이것에 回答을 주지못하고잇는것이다。

◇

가는 硝子桿의 끄틀세랏크로바르고 이것을 「크로모홈」의 물방울속에 너흐면 「크로모홈」은 一旦硝子桿을 吸入하고 세랏크만을 溶解시켜너흔뒤에 硝子桿을 逐出한다、그모양은 恰似히「아메ー바」가 다른「아메ー바」를 잡어먹고 不用物을 排泄하는것과가튼것이다。

그러나「아메ー바」는 살아잇지만「크로모홈」은 살어잇지 안타。

또기름의 一滴의兩側을 炭化「나토리옹」의 細片으로 同時에부다치면 油滴의 表面張力이變化해서 기름은 두개의물방울로갈려진다 이것은「아메ー바」의 分裂과가트나「아메ー바」에는 生命이잇고 油滴에는이것이업다

그러면 「크로모홈」이나기름에缺如한것은 果然무엇인가 缺如한것의하나는 原形質이라고하는 半透明한「젤리ー」狀의 流動體이다 이生命의材料의하나인 原形質은 모든動植物의細胞中에 發見되여 化學者는 그 正確한組織을 알고잇다 酸素 七二%炭素一三・五%窒素二・五%、여기에 더하기를 微量의 鐵分硅素、鹽素、「카르슘」、燐素、硫黃、沸素、「나토리옹」及「抹度」이것이 全部이다。그러나 우리가此等의 成分을 配合시켜 混合해보아도 거기서 나오는것은 아모런生命도업는泥土에 지나지못한다 그리고도 무엇인가 도망하고 잇는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生命에關한 化學的硏究의 아직 到達치못한것이 숨어잇다。

◇

옛날 希臘의 賢者「아리스토텔」은 生命은 흙으로부터 나오는것이라고생각햇다。比較的最近에 이르러서도 生命은泥土나 腐敗한 木材로부터나온다고밋고잇는 科學者도 잇섯다。그러나 이것이잘못이라는것은 今日우리全部가 다알고잇는바와가티「오하이오」州「크리ー브란드」의有名한醫師「죠지·와싱톤·크라일」博士는 細胞內에生命의 閃光을電氣에依해서 說明하려하고잇다。即우리의 身體는幾十億의 적으나이나모-든부터 成立되여잇다고한다 此說도全科學者의 贊同하는바는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개의鐵則이잇는것은 [illegible] 그것은「生命은生命부터오고、原形質만이 原形質을만든다」하는것이다

原形質의 硏究에 對해서뉴욕의「코롬비아」大學의「칼리앙·G·캘트」博士는 다음과가티 實驗을行해서「오-트밀」과 물을食料로해서 純粹한原形質을 成長시키는方法을 發見햇다 博士는 折疊한濾紙를 야트가림우에노코 다시이 이르른中에 물을넣어서 이것을떠온다 다음에는 何等의活動을하지안는 粘質物을 濾紙上에노는다。이粘質物은動物과 植物과의 生命의境界잇는純粹原形質이다 저즌紙上에서이成長한物質은 成長을始하야 나종에는 細分하기시작한다

그때博士는 여기에「오ー트밀」을撒布하면原形質은 이것을 吸入하고 消費한다。이러케해서 生命을가진「제리ー」體는急速히 成長해서두꺼운 板狀이되고 달리움겨서 實驗用에 供할수가잇는것이다 原形質은 二百五十分의 一吋의얇은膜中에싸혀서 細胞를 形成하고이 細胞가生命잇는 物體를組織해서 모든 生物學硏究의 細胞로 通하고잇다 이細胞中에만 生命의 神秘에 對한回答이숨어잇다

口頭試問 問答練習材料 (八)

—(漢洞公立普通學校)— 金宗奎

理科部

▲道路ノ種類ヲ言ッテ見ナサイ
△一等、二等、三等、等外道路ノ四種ガアリマス
▲ゴムノ製造法ハ
△ゴムノ樹ノ樹皮カラゴム乳液ヲ採リコレニ醋酸ト硫黃ヲ加ヘ熱シテツクリマス
▲人間ノ骨ハ何箇位カ
△二百餘箇カラ出來テヰマス。
▲椎骨ノ數ハ
△三十三箇デス
▲肋骨ノ數ハ
△二十二箇デス
▲肋骨ハ左右何本カ
△左右各十二本アリマス。
▲老人ノ骨ハ折レヤスイが幼兒ノ骨ハマガリヤスイ理由ヲ言ヒナサイ。
△老人ノ骨ハ石灰質が多ク膠質ガ少イシ幼兒ハ膠質ガ多ク石灰質ガ少イカラデス。
▲自動車ヤ飛行機ハ何ヲ使ッテ運轉シマスカ
△原油カラトッタ揮發油デ動カシマス。
▲「アスファルト」トハ何デスカ
△石炭ヤ石油カラトッタモノデ道路ナドニ、シクノニ用ヒマス
▲筋肉ノ數ハ何個位カ
△約四百個以上アリマス
▲筋肉ハ骨ニドンナニツイテヰマスカ
△兩端ガ腱トイフ强イ筋肉デ骨ニツイテヰマス、
▲筋肉ノ成分ハ
△約四分ノ三ノ水分ト蛋白質カラ出來テヰマス
▲新鮮ナ空氣ヲ呼吸スルノハナゼヨイカ
△血液ヲ淸淨ニシ精神ヲ爽快ニスルカラデス
▲消化液ヲ五ツアゲナサイ
△唾液、胃液、膵液、膽汁、腸液等デス。
▲子供ノ齒ハ何本カ。
△二十八本デス
▲大人ノ齒ハ何本カ。
△三十二本デス
▲口カラ入ッタ食物ガ體外ニ出ルマデノ順序ヲ言ッテ見ナサイ。
△口ニ入ルト齒デカミコナス時唾液ガ出テ消化ヲ助ケ舌ノ働キデ食道ヲ通ッテ胃ニハイリマスコ、デ胃液ガマザッテ消化サレ小腸大腸ヲヌケテ肛門カラ體外ニ出マス。」

紙上顧問

【問】各道에서施行하는 三種敎員檢定試驗에 對하야 左記事項에 下敎하심을바람니다。
一、期日及受驗者資格
二、科目及其程度
三、準備參考書의有無
(間島 宋達亨)

【答】一、(가)受驗及出願期日、場所는 各道試驗委員長이 每年指定하야 公布합니다
(나) 普通學校敎員試驗規則에는 受驗資格이 明示되지아니햇습니다마는 普校卒業이면受驗할수잇습니다
二、修身、敎育、國語、朝鮮語及漢文、歷史、地理、算術、理科、職業、體操、圖畫、唱歌、手工、裁縫(女子에게限하야) 程度는 師範學校卒業程度를 目標로하면 넉넉할것입니다
三、準備書는 여러가지가 잇스나 師範學校敎科書를 잘理解하는것이 第一安全한方法일것입니다 試驗問題集으로는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支部發行 『敎員試驗要綱及問題集』이라는 것도한번볼만합니다 다니(調査部)

【問】本人이 寫眞術을 專修코저하오데 只今도 京城市內에寫眞學校가 잇습니까?잇스면 其住所를詳細히 下敎하시옵。(平北欲知生)

【答】당신이 무르신 寫眞學校는 京城鐘路二丁目 靑年會舘內에잇사오니 그리로問議하시요

【問】寫眞이오래되여 色이變한것을새것처럼 맨들수업습니까 (長湖院一讀者)

【答】複寫를하면 될수잇스나色이 넘우變해서 잘보이지아니하는것이면 좀어려울것입니다 (寫眞部)

▲月尾 第一號 內容 仁川의人物은 누구누구? 月尾島評壇 隨筆、創作等數篇、連載小說百忍堂等其他 發行所 仁川府龍岡町一四 白眉舍 定價二十錢

▲京城府立圖書館報 第九號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五 京城府立圖書館 定價一部二錢

▲朝鮮商工獎勵館報 第三十六號 發行所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新興 第九號 (送料共) 目次 部落及歷史 申南澈 世代史觀批判 朴致祐 韓露外交史 申基碩 新羅花郎制度의意義 金台俊 高麗詩歌「眞勺」의詩歌名稱性 鄭潤濟 앙드레·지드의社會批判 李泰溫 人間精神 安永燮 外論文數篇 總販賣所 京城府堅志町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 定價三十錢

信用잇는藥店에는반드시에기호스가잇다

濕布にエキホス

모든發熱性과疼痛性疾患例하면流感、肺炎、肋(膜)膜炎、肺尖가다루、로이마치스、神經痛、腰痛、肩凝痛、關節炎、火傷、齒痛等에應用하면手苦를要치안는用法、簡單하고一回의塗布로長時間効力을持續한다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A—24

感氣・熱氣에 ハカリ印의 ヘブリン丸 헤부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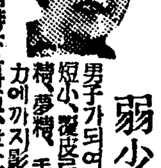
不注意로…… 큰일을만들고 感氣는早期手當이 第一 速히 헤부린丸으로먹게하라

心臟에害업고・頭痛을鎭定

三日分 二十錢

大阪和歌 參天堂株式會社

生殖器의形과力 弱少와包莖은簡單히낫는다



男子가되어서 年旣長成하여도、生殖器發育不完全短小、包皮로小兒의生殖器와가튼사람、陰萎早漏、遺精、夢精、手淫의害로因하야精力이衰한사람 …… 專賣特許 新療法發明 目下實物宣傳中 無代進呈

東京中野 京城 眞空療法研究所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體質과細菌을따라各各다릅니다 …… 全國有名藥店에 無할時는本舖에 藥書로나 振替로注文하시압 振替京城一三四六番 朝鮮靈藥研究所

一月二十五日낫부터二日間大公演 最高映畫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二回續映 三回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알바-드、고-졜氏 活劇 狂戀의날개

松竹京都超特作全發聲版 監督 大曾根辰夫氏 戀愛篇 珠玉의 興三郎浮名囃子 主演 美姬 飯塚敏子 高田浩吉氏

콜럼비아社特作品無聲版 監督 후랑크·카푸라氏 海洋活劇 사부마린(潛航艇)

第一劇場 電話光化門 一七五五番

手提金庫界の大革命到來! 永年研究に依り理想的發明完成

見よ!!! 手提金庫の覇王!! 最高級綱鐵製の最新形 當店專賣品!!

歲暮奉仕先着順小賣値四分ノ一 五百個限投賣賣切次第メ切!!

歲暮奉仕中實物을宣傳하기爲하야但一人當金庫一個限으로하고以上注文은謝絕함註文金額에一圓을加算하면貴意에依하야金庫에다店名을새여드립니다그리고歲暮奉仕中註文은前金又는注文時에三割以上을送金하시고內金이업는注文은絕對로謝絕함送金은小爲替又는振替三三五〇三番으로拂込하시요送料는郵便小包에는一圓二十五錢鐵道便이면運賃着拂을要함賣切되기前에速히注文하시요 東京向島區吾嬬東三丁目振替東京三三五〇三 クラウン工業所

御送金及注文方法!

T型A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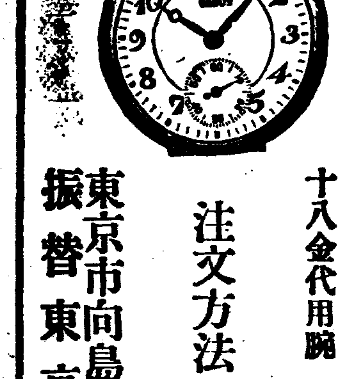
自動開蓋付器警報裝置

種類及寸法	縱幅	横幅	高サ	重量	定價	特價
五〇〇番A	一・二尺	八・二尺	五・三尺	一・五貫	三〇圓	一〇・〇〇
B號	同	同	同	同	二八圓	八・五〇

(1)材料は總て精選せる特種鋼鐵板を用ひてあります
(2)塗裝A號はオリーブ色結晶塗B號は黑塗優美で有ります
(3)前部の暗號文字符號は精巧で絕對故障を生じません
(4)前部のハンドルを右に廻せば蓋は自動的實に氣持良く輕快に全部上迄開く裝置になって居升從って在來の手提金庫の樣に蓋で手をいためる樣な事は絕對に無い片手で自由に開閉出來る爲事務(及使用)の能率をいやが上にもあげます此点弊店の最も苦心の新發明にて而して微妙精巧なる盜難豫防裝置を兼備し貨財の保管を絕對完全に致し升を云ひ升全く從來の型を破りました此手提金庫を一度御覽願へば總て御合點の事と存じます正に手提金庫ノ寵兒として各方面で異常な好評を受けて居り升

使用法!……
(1)前部のハンドルを右へ廻すと開蓋す
(2)暗號文字合せ各々指定文字に合す
(3)鍵穴左へ廻すと鍵がかゝり右へ廻すと外る、
(4)時鈴轉向鈕裝置STOPは開くときのみ鳴りRINGは開く時及び移動の場合は連續に鳴響す
(5)ネジ卷器
(6)金銀貨投入口

百聞이不如一見!! 舊歲暮大賣出을爲하야 兼實物宣傳



破荒的價格으로논아드림니다 大量生產과 實價提供은 本社가아니면 絕對로볼수업나이다 但都賣에限하며 一口注文은 五個以上으로함 個人注文은左定價에三割을加算함

十八金代用懷中時計 『十六型』寶石入アンクル 一個 三圓五十錢
十八金代用腕卷 『十型』寶石入アンクル 一個 三圓七十五錢

注文方法

特別奉仕이오니 前金注文以外는 謝絕함 同業者又는 團體注文에限하야 右金額으로 頒布함 送金은小爲替又는 替東京振三三五〇三番으로 拂込注文하시고 時計個數는 各五百個이오니 賣切되면謝絕함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羅雲奎의第七回作品『五夢女』는 [illegible] 그自身의 一步前進을 意味하는同時 [illegible] 길을 開拓하는 것이라고 하야 各方面의 [illegible] 을 이르키고 잇거니와 映畫同好者의멧사람이 그映畫에 對한 合評會를 열고、原作、脚色、監督等方面에對한 批評을 試驗한바잇섯다。映畫合評은 朝鮮에 잇서 첫試驗으로 興味가업지안흘만큼 그原稿를 빌어서 그中의重要한部分만 抄出해가지고 아래에揭載하얏는다。映畫合評會에 出席하얏든人員은 安夕影、徐光霽、金幽影、朴〇越、金正革、羅雲奎、洪起文의七氏다

安 一、原作에對하야

이제 제가 몬저말슴코저함니다。이번에 우리들의 眼前에나타난 發聲映畫『五夢女』라는 한篇의 文藝映畫는 羅雲奎氏가 病中에잇스면서도모든 精力을 다하야 만들어낸作品인바 이번의이作品은 羅雲奎氏가 良心的立場에서 製作한것이라고 보겟습니다。우리朝鮮映畫界에서는 賞과罰을莫論하고 映畫製作을 그中만히한분으로서 우리映畫界에서는 물도업는 功勞者요 또한 빗나는存在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오늘밤에 우리가 이와가티한곳에 모이게 된은 오즉 羅雲奎氏를 위해서 모이엿읍니다 만큼(오늘밤에 이곳에오신분은 지나간날밤 試寫會때에모오셧든분들이지만)原作을읽으신분은 映畫『五夢女』를 보시고나서 어떠한感想을 가즈셧는지 各自 말슴해주시엿스면 조켓다고 생각합니다。

徐 그러케 어려웁게 하지말고 처음부터 順序的으로 卽 原作、脚色、監督―이러케 말슴하시는편이 조흘가하는데요。

安 그럼 原作을읽으신분이 게실터이니까 어느분이든지 몬저 말슴하시지요。

金幽 저는 原作을 읽어보지못햇습니다。

徐 映畫『五夢女』가 原作보다는 훨신 잘되엿다고 하는말을原作을 읽으신분에게서 들엇습니다。

金幽 그럴까요?。

洪 그런데 그原作이 東亞日報紙上에 發表되엿섯습니다。

徐 小說的手法과 映畫的手法에 잇서서 그에對한 取捨點에 深妙한着眼을 가지게된것은 小說을읽고또映畫를 보고난나는 퍽 놀냇습니다。

金 이번에羅雲奎氏가 原作『五夢女』를取材한것은 나는퍽조

[illegible] 말하엿슬까요?

金正 咸鏡道地方에서는 흔히 사나히들을 오망둥이라고 하든군요

金奎 그러타면 女子를 웨何必 五夢女라고 햇슬까요。

金正 咸鏡道에서는 좀不良性잇는사람을보고 오망둥이라고하는대신 또 그러한女子를 오망애라고하는듯합니다 그런뜻에서 끄집어낸말인지는몰룹니다만……。

[illegible] 압호로잇서서 文藝作品을 製[illegible]하는사람으로서는 充實한[illegible]을 取할必要가잇다고 생각합니다。

徐 이번에 羅雲奎氏가 取材한『五夢女』는 한個의文藝作品으로서는 日本內地에서만든『元イモウト』라는映畫에 比해보드라도 퍽 成功한 作品이라고 나는 봅니다。

朴 이번에 羅雲奎氏가 한個의文藝映畫로서 『五夢女』를 製作하게되엿다는것은 過去에 無秩序한 無數한映畫에 比해서 새로운開拓의길을 再出發햇다고봅니다

互惠的態度라고 보앗습니다。그것은 文藝作品에 關心을가지게 된 羅雲奎氏의 그새로운意圖가압호로映畫界와文壇과의사이를接近케하는 가장조흔傾向이라고 나는봅니다

安 이번에『五夢女』를 본다면羅雲奎氏의成功을 기뻐하는바입니다

金奎 나는 外國映畫에다 比해본다하드라도 조금도 부끄러울點이업다고 생각합니다。

徐 『罪와罰』이라는 外國映畫에 比해보드라도 成功한 作品이라고 보는데요。

洪 原作을 한번읽어 보앗는데 原作에나오는 人物과 映畫에 나오는 人物과의 判異點、이것을 잘分別하야 새로운手法으로脚色한 그點에잇서서는羅

徐 이번作品에잇서서羅雲奎氏가 許多한文藝小說中에서도『五夢女』를 取擇하엿다는것은氏의故意이 咸鏡道이니만큼 그러한觀點잇어서『五夢女』를取擇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朴 저도 그러케 생각합니다다만 何如튼 羅雲奎氏는 남은사람이 생각지도안는것을 잘잡어내는 별달은頭腦를所有한사람이라고 봅니다。

金奎 五夢女라는 그뜻은 뭣을

雲奎氏의 明哲한監督을 우리는 잘理解할수가 잇드군요。

奎 그게所謂 욕지올합하는 오리지날스토리ー라고 할까요。

朴 그런데 이映畫에나오는 『五夢女』라는 女主人公의 性格은 머라고 指摘해야 조흘는지모르겟드군요。

金幽 그러면 原作에 對한말슴은 그만하시고 脚色에 對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世界的進出을꿈꾸며봄을기다리는舞姬――崔承喜女史

케ー불이처음으로 키스한女子

크라ー크、케ー불이 맨처음으로 映畫에서 키스하게된女俳優가 다시銀幕으로컴백하얏다 그女子의 이름은레노ー르、부쥬맨 그女子는四年前스타ー修業의 初步를 밟은男子를 레스트하얏다 그때의 레스트는 러브、씬으로 이男子는처음으로 女俳優와키스하게되엿다 더구나 그레스트의 結果成績이 良好하야 그男子는 날개도친것처럼 人氣가올려가서 一躍幹部俳優가되엿는데 그는다른사람이아니라 지금有名한 크라ー크게ー불이다 부쥬맨嬢은그때『이사람確實히큰俳優가되겟다』하고 保證을하얏스나 지금과가티 有名한人氣俳優가 되리라고는 누구나뜻하지안핫다 이레스트를 맛치고난지 數個月後에그女子는 銀幕에서 발을씻고隱退하엿던것이 今米國에다시도라오게 되엿다 【헐리우드發同盟】

라디오

二十八日(木曜)

◇午後六時〇分(平)하ー모니카合奏 一、觀兵式行進曲 藤本作曲 二、적은支那人 스미스作曲 三、채직은拍車 아ー렌作曲 四、사랑과名譽를위하여 五、軍艦行進曲 瀨戶口作曲 平壤高普하ー모니카・뺀드 指揮 岡部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四) 安奭奎
◇同七時三〇分(東)講演 上海事變紀念日을當하야 海軍大將 野村吉三郎
◇同八時〇分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想思別曲(歌詞)(大笒 奚琴 杖鼓) 二、表正萬之曲(細樂 大笒 唐笛 奚琴 杖鼓 座鼓)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저녁놀……롯시니作曲 二、淸溪水 三、愛想의저녁……시에르징가作曲 四、歌劇『노래와사랑에살자』…푸치니作曲 五、歌劇『椿姬』中에서……베르디作曲 피아노伴奏 金元福 金顯業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赤壁歌 鼓手 韓成俊 方應秋

第一放送

◇同六時(東)童謠
◇同六時二五分(城)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東)軍歌
◇同八時三〇分(東)雲雀
◇同九時五五分(東)物語

二十九日(金曜)

◇午後〇時五分 輕音樂 一、하ー르렘맨 二、콜로라도의달 三、故鄕의로ー만스 四、국여진追憶 五、블루믄블루六、비이 七、아이웬트메릴리、온마이웨이 서울째즈밴드
◇同一時 副業講座(四) 成周復
◇同六時(大)連續童話劇 바다의아히들 港口의公園 BKコドモ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五)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講演 金斗憲
◇同八時(東)비이올린獨奏 伴奏 大阪라듸오・오ー케스트라 一、西班牙交響曲中에서……라르作曲 二、세레나ー데……슈ー버ー트作曲엘만編曲 三、미샤・엘만 피아노伴奏 우라데이밀ー・파도빠
◇同八時四十分 ♬年歌外 一、♬年歌 二、노들江邊 三、방아타령 四、금강산타령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儒瓊閑
◇同九時 古談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講談
◇同六時(大)童話劇
◇同六時二十五分(東)副業講座
◇同七時卅分(東)講演
◇同八時(東)바이올린
◇同八時四十分(大)뮤지칼・드라마

三〇日(土曜)

◇午後〇時五分 報念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홍다령 四、개고리타령 金玉花 鄭柳色
◇同一時一五分 副業講座(五)共同育兒 成周復
◇同六時 어린이科學『飛行機이야기』 趙炳俊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五) 安奭奎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 咸尙勳
◇同八時 (平)流行歌 一、富寧淸津(申) 二、흐르는浮萍草(李) 三、故鄕이그리워(申) 四、꿈의上海(李) 五、行船曲(申) 六、저꿈이꿈(李) 七、追憶의눈동자(申) 申基錫 李英子 伴奏 平壤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金鳳仙 盧錦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映畫이야기 奇蹟의人間 李承雨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常磐津
◇同六時 (城)DK어리니이야기大會 櫻井小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 (城)副業講座製炭 飛永庄次
◇同七時三〇分 (大)管絃樂 大阪放送交響樂團
◇同八時 (大)漫談 松井翠聲
◇同九時 時事解說 杉狂兒 牧野社兒部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効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堂々第一ー다를수업는事實

●朝鮮에서過去數十個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續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 한일이잇지만은 그賣上高에 잇서서는 百補中이 斷然!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 京城西大門郵便局의發送數字가 事實을證明하는바이니 속이려야 속일수업고 疑心하려야 疑心할수업는 堂堂한 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만히歡迎밧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効力이 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貴族、兩班을비롯하야 京鄕各地名士諸氏의 最高賞讚과 推奬愛用을 밧는바이며、萬人이 다투어服用하고 激讚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 낼수가 잇 마는、그卓越한藥効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士 勿論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리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効力이가장 絕大偉大한까닭이며 廣告가 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効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堂第一인것이 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습니다。

이로써 服藥家의 疑心도 一掃되엿습니다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人生의再逢春

百補丸의効力은이러케광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 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 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에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飯過色 ㅅ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軍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소와 오랜淋疾도 消蕩됩니다
一、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藥價 一劑 特價 二十圓(重 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藥注文 送金은 左記三處中 便宜한口座에 一、振替京城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六三二番・振替五番

一月二十四日早터二日間 ‖晝夜二回‖

朴英鎬脚色 時代劇 洪吉童 全一幕

洪吉童洪吉童이라면小說에서나映畫에서나만히차저볼수잇는이야기!三尺童子까지라도알수잇는이야기!이것을朴英鎬氏에苦心努力으로興味百%의舞臺劇으로맨드러진演劇!팬!諸氏에게告別스를노티리고저하오니보시라洪吉童傳을?

金拾門作 現代劇 魔都의天使 全一幕

出演=韓一松、朴晧、金英波、李素然、孫流星、黃銀順

文藝部案 喜劇 新式舊式 全一幕

次週=五夢女、赤陽의斷崖、世界의王子、暗街의全滅

新堂町 電本[illegible] **新富座**

二十四日より二十五日まで四日間 陛下萬十錢均一

琴絲路藤間林太郎主演 浮氣はその日の出來心

リチャード・ディックス氏主演 惡魔の空襲

松山宗三郎橘喜久子主演 黑髮峠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二、〇〇 第二回 一、三〇 第三回 六、五〇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一月廿七日부터三日間公開 舊年末임으로從前대로土曜、日曜만昨夜二回 大衆料金 十錢奉仕 旣久待望中에잇든 警官車十七號宣傳週間 內彈大活劇

▲코롬비아映畫全發聲版 疾風決死隊 잭・메이나드 猛演

▲新興키네마特作映畫 大時代劍劇篇 劍聖千葉周作 劍劇王 阪東妻三郎 主演

▲新興키네마特作映畫 現代名喜劇 싸홈하지마라 新版夫婦讀本 [illegible]오하라・瀨玲子 主演

上往十里町 **光武劇場**

二十八日ヨリ六日間 晝夜三回

獨逸ウファ超特作 ウイリフリッチュ(二役) ケーテゴールド主演 ▲紅天夢

P、C、L日活合同作 小林重四郎、竹久千惠子 深水藤子、瀨川路三郎 ▲花火の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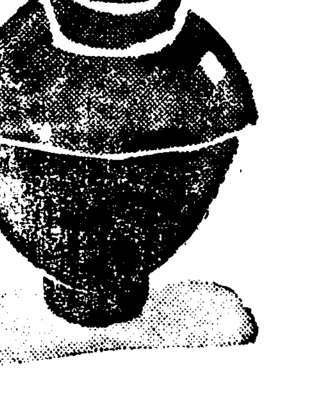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發聲 日本語版ニュース

最新式 溫風暖房完備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ワカゲキ

朝鮮日報社安岳支局 電話二八番



存續期成會組織 委員、讓受를運動

萬難을排除코期於存續코저 "풀"博士에交涉?

須彼亞·崇一 兩校廢鎖問題

【光州】 기보=문제중에잇는 남장로교경영인 『미숭·스필』 신수개가 운명을가티하야 금번신입학생부터 모집치아니하고 점차로 폐교를하게되엿스므로 전라남북두도의 각학교소재지에서는 관계학부형 또는동교도들사이에 존속할것을 전제로 여러가지운동을하고잇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문제가문제이니만치 단순한그관계학부형들로만 해결될것이아니다 행만아니라일부동교도들에게만 매껴둘 문제가아니라는말이 대두하게되야 광주(光州)목포(木浦)순천(順天)등이 호응해가지고 지금까지 학부형 혹은교직원들만이 운동을 하야오든것을 일반사회유지인사와가티협력활동하고저 각지에서 회합을하기로되엿는데 광주에서는 학부형회 발기로 이십륙일 오후여섯시에 신광원(新光園)이란료리집에서 일반유지회합이 잇섯다 거기에 참석한사람은 오십여명으로서 순서에딸아 학부형위원장인 김창용(金昌容)씨로부터 취지설명이 잇슨후 문제를 일부학부형들끼리만 해결할수업는 동시에 일반사회유지에게호소를한다고 열변이잇슨다음 조상항(趙尙亢)씨로부터 지금까지 교섭운동을해온 경과보고가잇섯고 제안(提案)에드러가 참석자일동은 만난을배제하고 전기량교를 존속해갈것을 만장일치로 의견이 일치되야 수피아(須彼亞)숭일(崇一)두학교존속기성회를 조직하엿다 그리고 십오명의 실행위원을선정하엿는데 그로인하야 전기두학교존속운동은 구체화하여가게되엿다 그바게문제중에잇는 전기두학교의 운명을 결정하고저 장로교본부로부터 광주에온 동교총무인 풀박사와 면회하야 전기두학교의 양도교섭을 하리라는바 그선정된위원의 씨명은다음과가타

▲朴癸一▲崔昌宣▲宋和植▲鄭文謨▲金在千▲李永順▲金信鎬▲崔泳旭▲梁泰承▲鄭錫好▲崔璇基▲張泳華▲金容煥▲李奎昭▲趙尙亢

滿浦線開通압두고 南浦港擴張促進

六萬府民이一致協力으로 近近市民大會開催

【鎭南浦】 진남포항만확장(港灣擴張)문제는 명년도에개통될 만포진선(滿浦線)을 중심으로 진남포번영상 중대문제이니 만치 진남포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서는 각방면으로 맹렬한활동을 하는일방 불일간시민대회(市民大會)까지열고 일반의여론을 환기할모양이라고한다 진남포항만확장문제는 만포진선개통은 별문제로하고 현하경세로보아도 단연확장치안으면 아니될형편이라는바 이제작년도에 항만리용(港灣利用)상황을보면 무역수액입어사천이백팔십이만원으로 입항선박(入港船舶)수가팔백팔십척(百五十七萬五千噸)으로 그중사백십팔척(八十萬四千噸)만이 안벽(岸壁)을 리용하여화물을 로그남어지는입항하엿스나 안벽을리용치못하고 바다가운대서 기다리게되는 현상으로 그비용만도 오만여원이라고한다 이가튼참혹한 현상에비추여보아도 진남포항만은 속히확장할필요가잇다고해서 진남포항만부민은 거부일치 항만확장실현에 매진하고잇는데 그결과를 매우주목하고잇다고한다

大田支局主催 漫談大會

廿九日警心館서

【大田】 본보 대전지국에서 신춘을 당하야 일반시민과 애독자를 위안하기위하야 오는 이십구일밤 대전 경심관(警心館)에서 조선이 나흔 만담가(漫談家) 신불출(申不出)씨를 초빙하야 만담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얏다 씨의 기당결변은 세상이 공인하는바이어니와 금번은 특히 새로 연구된 만담으로 대전에서 처음발표하는것이니만치 만장의 인기를 지금부터 집중하고잇서 당일의 초만원을 예상하게되며 특히 본보독자에게는 할인권을 발부하리라고한다

大同江上採氷作業 (酒岩山下所見)

咸南北間에 海洋爭議

그進展을注視

【淸津】 군에는 보이지도 안는 한계선(限界線)이 만경창파에 그려잇서 한발로 넘어들지 못하고 이에 위반(違反)한자에게는 단연 처치를 한다는 금단(禁斷)의 엄령(嚴令)이 잇다. 함경북도의 어선(漁船)수척이 함경남도의 해면에 드러가다고 함남측에서는 어선을 억류(抑留)시키고 어선측에서는 월경한일이 업다고 변명하고 잇는 일종의 해양쟁의(海洋爭議)가전개되여잇다

지난십팔일밤 열한시 성진(城津)을 출발한 저예망선(底曳網船)신영환(新榮丸)상양환(尙洋丸)청양환(靑洋丸)전진환(前津丸) 네어선은 성진근해에서명태어획(明太漁獲)의 작업을하다가 어군(魚群)을 따러 남하하엿든바 함남측에서 감시선(監視船)이 달려와 정선(停船)을시키고 선장을불러 엄중히 취조하는일방 네어선을 억류한채아즉석방치안는다는데 그리유는함남해면(咸南)에 구역침범하얏다는것이라한다 동성진측에서는 구역을범한일이업다고 변명하고잇스나 [illegible] 정선을 못드러가는 것은 [illegible] 잇다한다

總發生八千件에

比前年 千二百件增加

窃盜五千件詐欺七百件等最多

犯罪都市釜山 數字가말하는

【釜山】 조선서도 오직건의 대증가이다 그리고 재가는 상공도시로써 수릉세건강이어서 그발요 남조선의 용 생겨주중 경찰에 걸겨되는것이사 도로서 날로 약진의 약진을 더하고잇는부산항에 바갑지안흔 약진이잇스니 그것은 곳 범죄가 날로 증가해가는것이다 소화십일년도 중에 부산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팔천오백삼십일건으로 소화십년도에 비교하면 일천삼백 [illegible] 이상진 [illegible] 으로 범죄별로 보면 다음과가다

▲窃盜犯發生 五、二六六件▲同檢擧 二、二九〇件▲詐欺犯發生七二四件▲同檢擧 六二九件▲橫領犯發生 四三〇件▲同檢擧 三〇〇件▲傷害犯發生二七四件▲同檢擧二五九件▲賭博犯發生四五件▲同檢擧四一件▲其他犯發生九件▲同檢擧 六件

秋江李容愼氏 感謝會大盛況

【新高山】 함남안변군신고산 리용신(李容愼)씨가 일금이만원을 희사하엿다 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illegible]

靈峙普校設立費로 一金一千圓喜捨

溫泉姜敎善氏壯擧

【牙山】 배우고자하나 배움의길을 여지못하게된 수백의학령아동을위하야 대금을희사한 독지가—충남아산군 온양면온천리(牙山郡溫陽面溫泉里)에 거주하는강교선(姜敎善)씨는 원래자선심이 풍부한 정변이든바 금번에동군 [illegible] 을 기부하엿슴으로 일반은씨의 교육열에 대하여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西電"에팔터이면 千六百萬圓至當"

四面楚歌의府尹案

全員委員會第四日

【平壤】 이십만전평양시민의 시청을 총집중한 가운데에서 베푸러진 평양부회 제二번재계속개최된 평양부영전기문제를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는 이십오일 오후두시부터 역시 부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여 부리사자가제출한 부전매도안(府電賣渡案)에대한 검토가잇섯는데 대다수의원은 부전매도안을 여지업시공격하고 철회하라는소래가 장내에 창일햇섯다 그런데 이문제는 적어도평양부민 전체의 리해가 달리어잇는 문제일뿐아니라 평양부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재원의 처분문제인만큼 방청석도 대만원을 일우워 시종일관 긴장과흥분속에서 막을닷고 이십륙일오후두시부터 속개할것을 선언하엿다

제사일개회벽두에 송영상(宋永祥)의원은 나는물론부전사수파이니 시야(矢野)부윤의 매도안에는 단연반대하며 만일무리하게도 매도안을 부윤이고집할경우에는 의원을 사임하야 부민에게약속한공언을리행하겟다는 이야기를전제로 다음과가튼질문을발하야 시야부윤의답변을요구햇다

가、부회에서 시야부윤의 매도안을 부결할때 원안집행(原案執行)할의사를가젓는가?

나、화력 자가발전안을 [illegible] 는 정당한수속을 취햇는가?

다、직접매전(直接賣電)을 부윤단독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창을하는 근거가무엇인가?

라、부전으로 계속하면 손해가된다는데 서전에서는 사는리유는 [illegible]

윤영선(尹永善)의원도 [illegible] 부전은 부전대로 영원히 사수할것이라는 주창을한후 [illegible] 의원이 연단에올라가 시야부윤의 제시한수자를전연산출할수업다고 간파한후 [illegible]

서전은 현재 [illegible] 전구역(全區域)안에 겨우십삼만등(燈)을가지고잇는데 우리부전은 시내에만 십일만등을 가지고잇고 압흐로 발전할여지를 다분으로 가지고잇다 이때문에 엉터리업는 부윤안을 철회하라고 동의를제출햇다

平北의重要懸案

南總督에게陳情

【新義州】 이십칠일오후두시 신의주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회두 가등겸차랑(加藤謙次郞)씨는 지난이십오일 신의주부와 상공회의소주최로 모인 공직자(公職者)대회에서결의된 세가지진정안(陳情案)을 래신하는남총독(南總督)을 도청응접실에서 단시간의 회견을구하야 다음의사항을 제출하얏다한다

一、鴨綠江沿岸拓殖鐵道敷設促進要望의件

二、多獅島大築港計畫實現要望의件

三、大新義州市街地計畫樹立及工業地帶設定要望의件

南旨川防築運動

又復陳情員들上京

【釜山】 일천오백호의 생명재산에 중대관계는물론 장래 대남지건설에 큰관계가 되는경남창녕군남지(昌寧郡南旨)대방수제(大防水堤)를 축조해달라고 루차당국에 진정해오든바 잇는 루보한바 잇거니와 지난이십사일오후 비시부터 당지 령남수리조합(嶺南水利組合)회의실에서 면민유지 오십여명출석으로 면장권경수(權景洙)씨로부터 금번경남도청에 진정한전말보고가끗나자 또다시 그설계에대한 진선미를 더하기위하야 오군수권면장(吳郡守權面長)등반으로 민간대표 [illegible] 씨등이 당일밤차로상경키로 결정하엿다는데 듯는바에의하면 그공사비는 [illegible] 주민부담이 [illegible] 인것을 축석에서 부담해 결정하엿는데 그는 [illegible] 부과케되엿다고한다

存廢의岐路에선 平壤의숭실系三校

引繼交涉의挫折徑路 (三)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숭실중학과 숭의녀학교의 경영권을 양도바들 조선인측 경영위원의 선안은 이러하다

모도지가로부터 팔십만원내지 백만원의 재단을어더 현재의 세학교 재단법인오십만원과 합처서 대재단법인을만드러 세학교를존속하되 재단법인의 대표자도 출자자로부터는두명 남어지대표자는 평양교회안에서 추천하는 두명내지세명으로서 설립할것을 결정햇든것이다

이래서 평양및숭실세학교의 전도와의 [illegible] 은 퍽도깃버햇고 선교사단측으로도 그러면 대단히조타고 만족의 찬의를표하는동시에 양도에대한 "세목결정(細目決定)"에드러가 선교사단측에서 근본교육사업정신을 불고하고 욕구조건을 무수히 제출하여 [illegible] 경과하면서 실로수십회의회견이잇섯다 선교사단의 욕구로서 최초에는 숭전본관(崇專本館) 과학관(科學館) 도서관(圖書館) 숭전대강당(大講堂) 그리구 [illegible] 기숙사 [illegible] 에 잇는 경제농장(經濟農場)과 현재의 운동장(運動場)전부를 선교사단에서 차지하고 현재의 숭중교사(崇中校舍)와 숭의학교(崇義學校)의 교사 기지만을 조선인측신경영자에게 인계할것을 주창햇다

그러나 조선인측 경영위원측으로서는 여기에대하야 반대가업슬수가업고 선교사단의 교육정신에 위반하는 태도에대한반박도 만햇든터이다

이리하야 인계세목 결정으로 사개월이라는 시일을 경과하면서 절충을 거듭한결과 최후안으로 선교사단에서는 [illegible]

서관의 여섯건물과 그기지오천평만은 [illegible] 신경영자에게 인도할수업다는것을 력설햇스므로 조선인측경영위원으로서도 이안을수락하게되엿든것이다

그런데 선교사단에서 우에기록한 여섯건물을 자기들이차지해야되겟다는 리유는 교육사업에서는 할수업시퇴각하나 현재의 선교사업을 가일층확장할필요를 늣기는터이며 이필요로 행하는데는 현재의 고등성경학교(高等聖經學校)를 확장하기로 되여 숭전위치에 이전하겟다는 것이다

이리하야 교사와 기지문제의 교섭은 일단락을 고햇스나 이번에는 [illegible] 조선인 신경영자에게 요구하게되야 최초에는 [illegible] 을 주장하다가 [illegible] 으로 락착을 보게되엿스니 [illegible] 을 인도하는 교환조건으로 [illegible]

좌우간 선교사단실행위원과 조선인측 경영위원사이에서는 우에와가튼 조건으로 의견의 일치를보아 [illegible] 인계청원(引繼請願)을 미국선교본부(米國宣敎本部)에 발송하기로되여 계약을 작성한후 조인(調印)을 보게까지 진섭되엿섯고 실행위원회에서는 물론 선교사들이 미국선교본부에 미리부터 이런조건미테서 세학교의 경영권을인도할것에대한 허락을 밧고잇섯스므로 이조인이야말로 최후의결정을 짓는것이되며 또재조선 [illegible] 에서도 세학교의 재산처리를 하는때에는 반드시 비교인(非敎人)에게 경영권을 인도할것을 결의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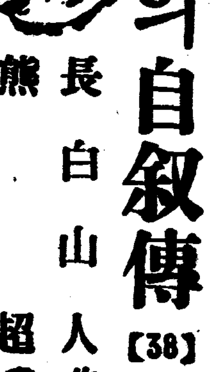
그리유로서는 모종사실(某種事實)이 장로교정신에 위반되므로 부득이 학교경영을 폐지하는이상 조선인기독교의 단체、개인에게 양도한는것은 불가하다는것이다

이래서 조선인측 경영위원김동원(金東元)고한규(高漢奎)정두현(鄭斗鉉)등삼씨는 인계계약서에 조인을하려든순간에 억하심정인지 정두현씨는 돌연히숭중학부형들의 권고가잇슴으로 조인을할수업다는 배신행동(背信行動)을감행하게되여 반개년동안 고심참담햇든 교섭은수포에도라가고、동시에선교사단에서는 조선형제신용할수업다는 그러치안허도 내심으로 세학교의 폐교를 희망하고잇든 선교사단으로서는 교섭파기를 선언하는동시에 세학교는 현상대로 오는 [illegible] 경성에서 개최되는미슌회 총회까지 계속하되 삼월의 신입생은 모집하지안흘것을성명하게되엿스며 반면에 백만원의 재단을제공코저하든 모독지가로서도 손을떼인다는 성명을하게되여 세학교의 전도는 더시금 암담하게되고마럿고 이제비상책이업다면 세학교는 완전히폐지될수밧게 아무러한 도리도업게되엿다 (終)

平壤支局 金晩炯

長篇小說 그의自叙傳【38】

白山人 作 / 長熊 畫



소년시대(七)

나는 내가 혼인을 하게 된것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다만 이상한 인연이 나로하여금 급작스럽게 혼인을 하게하엿다는것과 이 혼인이 내 일생에 큰 파란의 원인이 되엇다는것만 말하면 고만일것이다.

나는 돈을 탐해서 이 혼인을 한것도 아니엇다. 왜 그런고하면 그 집은 부자가 아니엇기때문에. 또 나는 색을 탐해서 그 집과 혼인을 한것도 아니엇다. 왜 그런고 하면 나는 그 녀자를 한번 본일도 없을뿐더러 그 집이 미인 딸을 둘만한 가문이 아닌것도 잘 알고 잇엇기때문에. 또 문벌을 탐해서 한것도 아니엇다. 왜 그런고하면 그 집은 내 집보다 문벌이 좋지못한 집이기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슨 까닭으로 이 혼인을 하엿나? 내게는 여러가지 설명도 잇지아니하지만 결국은 인연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나.

내가 재당숙 집에서 [illegible] 좋아오는 길에 [illegible] 라는 내종매부가 나를 찾아서 재당숙 집으로 허뎌거리고 오는것을 만낫다. 그는 육십이 넘은 로인으로서 길다란 지팽이를 짚엇다. 그는 가난한 한학자로서 내 선친과 의분좋게 지나던 이인줄을 나는 안다.

성재가 늙은 몸으로 여러십리 길을 나를 찾아나선것이 다른 일이아니라 내 혼인에 관한 일이엇다. 그는 내 아버지의 술친구이던 8라는 노인이 방금 병석에서 오늘 내일하고 시각을 다투는데, 꼭 나를 사위로 삼아서 어린 아들을 맡기고야 눈을 감는다는것이다.

나는 성재를 따라서 그날 밤으로, 음력 칠월 그믐의 캄캄한 산ㅅ길과 미끄러운 벌판 길을 걸어서 8노인의 집을찾앗다.

8노인은 내 손목을 붙들고 「서야. 너 아버지 친구야. 나는 너만 믿어. 내 딸이 변변치못하지만 너만 믿어. 너만 믿고 눈을 감을테야」 하는 말을 가까스로 알아듣게 하엿다. 벌서 혀가 꼬부라져서 어음이 분명치못하엿다.

나는 무조건하고 승낙하여버렷다.

당 이것을 내 갑저성이라고 할까. 나는 이 일종의 병인의 말을 거스릴 용기가 없엇다. 만일 이 일종의 병인이 청하는 말이면 무엇이나 거스릴수가 없엇을것이다.

이리하야 좋아좋아 혼인을 하게되엇다. 조부는 불만하여서 입맛을 다시면서도 반대하지아니하엿다.

나는 음력 팔월 어느날 남전북 옥색도포에 항건쓰고 갓쓰고 사린교에 덩그렇게 앉어서 장가를 들어 전안의 예를 행하엿다.

그러나 어떻게도 짧은 인연이엇던고? 나는 장가든 이튿날에 곳동경으로 간다고 떼를 썻다. 그런 법은 없다고 하야서 겨우 삼일을 치르고는 신붓집에서해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고구라 양복을 입고 떠나버렷다.

「싫다」 하는 한 생각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놓지아니하는것이엇다. 신부는 나와 동갑이엇다. 신부에게 무슨 결점이 잇는것도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엇고 마음씨는 보통 사람 이상이엇다. 그런데 어찌하야서 이렇게 싫을까. 그 싫은 모양은 도저히 형언할수가 없엇다.

나는 경솔한 혼인을 후회하면서 지극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동경으로 왓다. 혼인이라는 이 한 사실이 내 [illegible] 변해버린것 같앗다. 오직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같이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만을 품고 잇던 내 가슴에는 여러가지 번민이 들어왓다. 나는 밤에 눕도록 잠을 못 일우는 버릇을 얻고 때때로 시무룩하게 앉어서 한숨을 쉬는 버릇도 생겻다. 나는 [illegible] 기도를 들이러 가지마는 전과같이 마음이 즐겁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구름 안개속에 가리워서 아모리하여도 그 얼굴이 보이지를 아니하엿다. 번뇌는 진리를보는 마음의 눈을 어둡게하는것이다.

친구들은 내 성격이 갑작이 침울하게 된것을보고 안해가그리운것이라고 놀려먹엇다. 이런 한 소리를 들을때에는 매욱괴로워저서 나는 그 자리에서뛰어나가거나 가끔 성을 내이기도하엿다.

第五十六回貸借對照表 (昭和十一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

資産之部	金額
電氣供給事業設備	[illegible]
軌道及自動車事業設備	[illegible]
瓦斯事業設備	[illegible]
兼業設備工事假勘定	[illegible]
貯藏品	[illegible]
事業未收入金	[illegible]
諸未收入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預金	[illegible]
現金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及資本之部	金額
資本金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使用人退職積立金	[illegible]
給與引當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諸未拂金	[illegible]
短期借入金	[illegible]
支拂手形	[illegible]
從業員身元保證金	[illegible]
預リ金	[illegible]
預リ保證金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前期繰越利益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金額
前期繰越利益金	[illegible]
當期純利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之ヲ處分スルコト左ノ如シ

	金額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配當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右之通リニ候也

昭和十二年一月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五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大橋新太郎 / 專務取締役 武者鍊三 / 常務取締役 見目德太 / 取締役 澁澤敬三 / 同 石坂泰三 / 同 福島甲子三 / 同 吉谷專吉 / 監査役 木本倉二 / 同 福島行信 / 同 閔大植

昭和十二年一月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五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

監査役三名任期滿了ニ付改選ノ結果再選重任セリ 京城電氣株式會社

第六拾壹期末昭和十一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貸借對照表

資産	金額
現金及預ケ金	[illegible]
預ケ金	[illegible]
朝鮮總督ノ指定シタル銀行ヘノ預ケ金	[illegible]
郵便振替貯金	[illegible]
金錢信託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國債	[illegible]
(內手許在高)	[illegible]
株式	[illegible]
割引手形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荷付爲替手形	[illegible]
貸付金	[illegible]
手形貸付	[illegible]
證書貸付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他店貸	[illegible]
動産不動産	[illegible]
營業用土地建物什器	[illegible]
所有動産不動産	[illegible]
保證勘定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拂込未濟資本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	金額
預金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特別當座預金	[illegible]
通知預金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借用金	[illegible]
借入金	[illegible]
再割引手形	[illegible]
當座借越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保證勘定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雜勘定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未拂利息其他	[illegible]
未經過割引料其他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預金利子諸稅	[illegible]
未拂送金爲替	[illegible]
株主勘定	[illegible]
資本金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役職員退職慰勞基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illegible]
(內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株式會社 東一銀行

◆緊急大投賣斷行 分冊 辭典拾冊 合本 タッタの一圓 分冊は十四冊 各冊 特別代進呈品 縮刷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illegible]

●手紙上手は一生の徳!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不返金) 特價一圓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男女共に心得置くべき! 諸禮法 婚禮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定價五十錢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經濟解說

朝鮮의 肥料統制令 發布遷延事情

朝窒의獨占橫暴抑壓?

⑥…朴用來

우에서 우리는 日本內地에서 實施되고잇는 重要肥料業統制法에 對하야 若干의 論評을 試하얏다. 그러면 朝鮮에잇서서는 어떠한가.

朝鮮은 日本內地와 法域이 다름으로 重要肥料業統制法과는 別個로 制令의 公布를 要하는바 그 內容에 잇서서도 肥料業界의 事情이 다르니만치 朝鮮의 特殊事情을 加味하리라한다. 그 具體的內容이 如何한가는 肥料統制令의 公布를 보기前에는 알수업스나 傳하는바에 依하면 朝鮮은 肥料製造業者가 朝窒單一社뿐이어서 肥料統制에 當하야 日本內地와가티 肥料製造業組合을 設立할 必要가 업스므로 肥料統制令에 잇서서는 肥料製造業組合에關한 規定은除外하기로되엇다한다. 이에따라 販賣價格의 決定과 配給에關한 問題가 이러나게 되엇는데 그 問題 이問題를가지고 當業者間에 잇서서 여러가지로 折衝을 거듭하야왓스나 아즉 確定的 消息을 듯지못하엿다. 그러나 問題의 顚末을 듯건대 朝窒에서는 日本內地統制組合에 參加치안는다.

一、朝鮮內配給量을 爲하야 朝窒은 三十五萬噸을 提供하고 各地에 當備在荷를 行한다.

一、肥料配給公定價格을 日本內地와 朝鮮 一本價로한다.

고 主張함에 對하야서는 總督府와 本內地와 朝鮮에 對하야서는 大體 意見이 一致되엇스나 日本內地法令의 規定으로보아 朝鮮의 供給에對하야서는 朝鮮內製造業者가 責任을 가지고 移入 그他도 製造業者와 同組를 通하야 하는것이 當然하며 公定價와 配給의 責任을 지는것이 當然한 權利이다 라고 主張하야 朝鮮內肥料配給의獨占과 價格決定權을 要求함에 對하야서는 總督府에서 그獨占的橫暴을 두려워하야 專賣를 가지 移入에 對하야서는 滿洲나 日本內地의 有力한會社를 指定하야 責任配給의 安全을 期할 작정이라하며 公定價에 對하야서는 朝窒에게도 案만은 提出케할것이나 最後的決定은 統制委員會를 通하야 總督府와 農林省의 協議下에 決定할 方針이라 한다.

이리하야 朝鮮의 肥料統制令은 日本內地의 肥料統制法實施에 뒤니어 곳 發令을 보리라하더니 春肥實施期에 迫到한 今日에잇서서도 아즉 이를 實施를 보지못하고잇다.

어가며 그實施가 遷延된 理由는 昨年末 日本內地의 統制法에 依하야 設立된 肥料製造業組合에서 朝窒도 同組合에 加入시킬것이라는 問題를 이르키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하야 肥料製造業組合側으로보면 大生產者인 朝窒을 組合圈外에두면 組合의 協定-製造制限, 販賣價格等-이 攪亂되어 不利할 것을 主張하는것이오 朝窒側으로보면 구타여 組合에 加入하야 組合의 協定에 拘束바들 必要가 업스므로 그加入을 즐기지안코 또 組合에 加入하면 日本內地와 朝鮮의 二重의 監督을 밧게되다하야 總督府側으로서는 朝鮮은 日本內地와 法域을 달리하야 制令이라는 法令의 手續上差異도잇거니와 朝鮮配給 第一主義로보더라도 朝窒이 반드시 組合에 加入하여야할 必要가 업다는 意見을 갓고잇다. 이리하야 朝窒의 組合加入問題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 끌고잇는바 그間 當業者間에서 折衝한結果 結局 朝窒은 在年度四十萬噸의 硫安中 三十五萬噸은 朝鮮內에 保有하고 그 總督府의 價格統制에 服從하며 남어지 五萬噸을 日本內地에 移出하고 또 日本內地의 硫安市場을 攪亂치 안키로하는 것을 條件으로 組合에 加入치안케될 것이라고 傳하야 前記 朝窒과 總督府間에 이 그대로實現될形勢에잇다. 그러면 肥料統制令의 實施는 [illegible] 消費者를 爲하야 반드시 [illegible] 에게 맛기지안코 當局에서 [illegible] 가운될것이다. 客年初 朝窒이 [illegible] 硫安價引上聲明은 아직 記憶에 새롭거니와 今年에 入하야서도 春肥를 압두고 硫安을 비롯하야 各種肥料의 昂騰을 보아 物價高를이르키고잇다 最近에 肥料昂騰이 諸般物價昂騰에 刺戟됨이 업지안흐나 그 보다도 肥料業者의 人爲的引上策이 奏效한바 만타할것이다. 統制令의 發令을 압두고 肥料業者는 肥料를 賣惜하야 各地에 品貴를 이르키고 肥料價昂騰의 主要原因인것이 이리하야 公定價를 노피 決定되도록 하려는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에잇서서 肥料業者의 獨占橫暴는 實로 莫甚하다. 그러하야 獨占價格을 公定하야 統制하기를 바라며 따라 統制令實施에서 期待를 가지는바이다. 肥料統制令實施의 影響에對하야서는 그發令을기다려 後日 다시 쓰기로하고 爲先 이로 擱筆하기로한다. —(完)—

商品界의 趨勢

當分氣迷難免

◇…人氣混亂으로 整理를促進中 政局不安의 影響으로

株式界는 宇垣氏組閣工作의去就困難으로 低迷裡에 不安商情에잇서 政局不安에伴하는嫌氣로 昨年末부터 昂騰一路를 밟은市勢에 一般의整理를 促進할것으로 보이거니와 重要商品의淸算市場과 現物市場도政局推移가判明되기까지 氣迷商態를 未免할것으로보인다。

米穀 米는 統制化되어高價나 低價나 모다 局限되엇스므로 政情이 如何히 變化되던지 큰變動은 업슬것이나 다만最近은 環境時히 物價昂騰에伴하야 高價를維持코잇스나 日本內地米豐作數字發表도加味하야 環境不勢에 追從할것으로봄이 當然할듯하다

綿絲 馬場財政이 齎來한 爲替管理强化로 三百圓에 까지 沸騰하얏든 市勢도 政府의 高物價過度에 對한 抑制方針이 明白해젓스므로 先物 二百五十圓臺에서 浮動인바 棉花輸入量의 保持와 二十三日株主總會에서 津田社長이 主張한 操短緩和論이 共鳴者를 엇는다면 結局政府의 統制强化의 如何에 不拘코 市勢는 高價를 抑制케될것이다

人絹 人絹이 生絲의 模造品인 時代가지나간 今日에잇서서는 生絲와의 相關關係가 稀薄해젓고 原料펄프를 海外로부터 求하는點으로보드래도 全혀 綿絲와 變動을 가치하야 今後도 特別한 事情이 업는限 大勢는 綿絲와同方向을 取할것이다。

生絲 直接的으로는生絲市場에 큰打擊이업스나 株式을 비롯하야 日本內地環境惡化와 海外市場動搖가 間接的으로 波及할念慮가 잇슬것갓다 그러나 需給良好의 確固한 基礎우에서잇는 絲價는 큰低落은업슬것이다。

都鄙物價 昨年下半期以來 一路上向한物價昂騰의波動도 漸次그 頂床이 破壞되려할지음에 政局이 混沌하게되어 一層人氣의 混亂을促하야 進退兩難에 落하엿다가 이때까지 가지고잇던 商品을 淸算하려는 人氣도 또한看視이 여기와서 突變할수밧게 업시되엇기때문에 一段過去의 取引을 過할수가업고 따라서 一齊히 整理市勢를 보이고잇는것이다 鋼材 고무 毛絲 肥料 製粉等에 이傾向이 자못濃厚한것갓다

地方操業 [illegible] 年十二月以降 本格的操業에入하야 落葉松材를 [illegible] 月中旬以來의新製品은 [illegible] 輸入펄프에도比肩할 優良品을產出할수잇게되어 年間一萬噸의全能力으로 操業을進코잇다 이미製品을 帝國人絹岩國工場及 東洋레온石山工場에 納入하기로 決定하얏다고

滿洲國商務官

朝鮮內設置要望

▲…貿易協會의活動

朝鮮貿易協會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理事會를 開하고 協議한結果 如左히 決定하얏다

一、滿洲國領事館設置要望件 滿洲國領事館設置에 朝鮮內 主要地에 滿洲國商務官公辦處設置를 要望할 것

二、南洋航路運賃値上反對要望

三、小口混載車扱의 朝滿連絡에 關하야 要望

四、朝滿國境附近의 鐵道運賃調整을 陳情함

五、朝滿國境附近의 金融機關整備를 陳情함

金、白金大暴騰

產金景氣當然招來

金은六十五錢高、白金五、六圓高

◇…年初에比한京城市勢

各種物價의 中樞가되여잇는金價는 物價高의 大勢에따라 벌서 新春부터 騰貴하고잇는 步調가顯著하거니와 內外의情勢는 亦是 先高의豫測을 可能케하는 條件이 만히잇서 朝鮮의 產金景氣는 今年에들어 一層膨湃하리라는觀測이 크다 即新春의金、白金時勢는 一月六日現在가

京城金	買物	十三圓○七錢
	賣物	十三圓二十五錢
白金	買物	十七圓○七錢
	賣物	二十圓○○錢
東京金	買物	十三圓三十錢
白金	賣物	二十圓

보면 二十七日의市勢를

京城金	買物	[illegible]
白金	買物	[illegible]
東京金	買物	[illegible]
白金	買物	[illegible]

으로 京城市勢로金은 約五十錢이 오른것이 錢白金은 五圓乃至六圓의 昂騰을 보앗다 이와가튼 金價의 昂騰은 金利低와 國爲替低에 伴하여 一般物價高의 錯綜한 最近情勢가 加味되는關係인데 이 大勢는 當分不安을 더하게될 氣運이 濃厚한 터에 自然一般의 換金心理도 刺戟하여今後金價는 더昂騰하리라는 觀測이 可能한터이다 一方에 當局에서는 物價高는 產金事業에 採算上影響할바도 업지는안흘것이나 大勢가 金價高를 招來하리라고 보는以上 產金景氣도 當然上昇될 것으로 보고잇다

爲替管理强化

疑點質問

奥村氏의說明

旣報한바와가티 京城商議에서는 二十七日午後二時에 商議第一會議室에서 總督府財務局事務官奥村氏를 招請하야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命令의 內容及 實施에關한 說明을듯는 會를 開催하얏는데 우선 奥村氏로부터 同令實施의 趣旨와 同令內容의 簡單한 逐條說明이 잇슨後 疑點質問이 잇섯는바 그對答의 몃가지를 紹介하면 大體如左하다

▲同法中『那貨幣通用力을 有하는地域』이라하얏슴은 關東州와 滿洲附屬地를 가리키는것으로 日本貨가 通用되기는하나 滿洲國全體라든가 北中가튼곳은 强制的通用力을갓지못하얏스므로 그地域에 들지안는다

▲物品이 物品의決濟는 無關한것으로 同會의 適用을밧지안는다 그러데 證券가튼것은 物品이아니다

▲同令第一條第一號에 一個月을通하야 金額三萬圓相當額以下의取引 又는行爲를할때에는 總督府의 許可를 엇지안허도 되다고 規定되엇는데 當初에는 三萬圓以下라든것이엇는데 際에잇서서 三萬圓을 超過한때에는 그超過分에 對하야서만 手續을하면되다

▲또 輸入國이 甲、乙、丙等數個國에 亘하야잇슬때에 各國별로따로 三萬圓以下가아니라 그數個國合計額이 三萬圓以下여야한다

▲그달의輸入額이얼마에 達할는지알수업고 또는 다달이 許可를 어드려면 取引上 支障이잇는때는 三個月期間許可를 어들수잇는데 許可手續用紙는 一枚라도 無關하나 物品名은分明히記載할必要가 잇다

▲商品名은 關稅定率法別表 輸入稅表의 區分에 依하기로 되엇는데 그表의 當該商品의 番號를 記載하야서는 안되고 또 細目品名을 記載함이조타

▲輸入品目의 制限은 업스되 過去의 商品輸入實績을 參考하야 不許可하는境遇도잇다

織物移入高

一億六千萬圓

朝鮮의織物移入稅는 本年四月부터 撤廢키로되바 十一年의朝鮮織物移入高는 一億六千五百四十三萬四千八百十六圓으로 織物別에依한移入高는 如下하다

綿織物	六六、六七八、四四五圓
麻織物	一三○、六六六
毛織物	[illegible]
絹織物	[illegible]
合計	一六五、四三四、八一六

取引停止

(一月廿五日) ▲靑果物商京城府東大門市場⑧商店白南旦 ▲京城府本町二丁目三株式會社 시에로齋藤商會專務取締役 大橋治郎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三七 스미레屋進物店 加來恭士 ▲京城府元町一丁目二九 常盤商會 掛谷千似 ▲鐵山樓 京城府旭町二丁目三○ 神崎增次郎

寸鏡

東拓의 資本投下는 去益旺大할는지 日產과 雙璧

○ 起業金融의 機關이 新設된다면 今後如何

○ 某銀行不許事續出로 또銀行大合同論擡頭

○ 急작스럽게 實現되지는 안켓지만 要는時日問題?

整理釜問題不進步

過剩釜整理問題에 關聯하야 日本內地工場과朝鮮內工場의差別待遇是正에 對하야서는 過般來製絲協會長小口氏外 三團體代表가 渡東하여 交涉中이나 渡東後 政變問題에 逢着하야交涉이 遲遲不進한狀況이라한다

金買上價引上豫想

京城府中地金市勢는 買上價引上豫想과 產金業者의 思惑買도잇서 實物이 적은 狀態이다 朝銀의買入價는 十三圓五錢으로 市中市勢에 比하야 四、五十錢低價임으로 地金의 朝銀持込은 減少되어잇다. 朝鮮으로서는 一月中旬以來 嚴寒期에 入하엿슴으로 小規模의 採金은 砂金이나 山金이나 採掘休止가만코 또大規模의 砂金採取도 結氷으로 作業이 不捗하야 產金出廻는 全面的으로 減少되어잇다

東新의 前途觀

東新은 年末年初의 大爆發로 百卅七、八圓臺의 中間揉合場所를 버서나서 百六十二圓六十錢의高價에로 躍騰하엿든것이 議會再開와함께 波瀾商情이되어 드되어百四十七圓九十錢의 低價에로 急落을告하게되엇는데 今後의東新前途는 如何할가하는것이 이제興味의焦點이되어잇다 勿論材料的으로는 政局의動向如何에 달린바만흐리란것은 勿論이어니와 材料를 떠나서 市勢自體의 動向으로보아 어떠한 움즉임을 보일것인가? 二、二六事件後의解合價 百五十五圓丁을 上廻한市勢는 비록六十圓臺 上拔햇슬지라도 解合價格으로 手中에 들어간 株가無慮 數萬株이므로이때부터 一大波瀾을 內包하고잇섯든것으로 當然히 波瀾과 同時에 相當한 一押이잇슬것이 豫想되엇는데 이것이 議會停會、內閣總辭職을 機로드되어 實現되고 말엇스므로 市勢自體로는 一巡으로 볼수밧게업고 萬若最近의 場面은 보이더라도 百四十三圓臺를割은 업스리라는것이 政局의不安其他로因한 揉合이 一局 [illegible]

局은前內閣의 旣定方針인 三十億의 四千萬圓에 達하는大撒布는如何한 內閣을不問하고 通過하고야말것임으로 結局物價大勢는진실로 『인푸레』景氣의 行動을하고야말것으로 一般은 觀測하고잇다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百五十一圓三十錢으로 六十錢高에 寄付하엿스나 依然한 不安人氣로 新規買가업서 다시 百五十圓臺를 揉合으로 依然한 低迷商勢이엇다

株式 依然低迷 不勢

今日의市勢 (廿八日)

前場不動 宇垣氏의態度는 依然希望을 버리지안코 最後까지 努力할決意이라 이것으로미듬성잇는바이로되 아무튼 陸軍의 態度는 少毫의讓步도 認定할수업서 組閣은드디어 最後的場面에到達한것으로 볼수밧게업스므로 外電의一切高도效果업시 東新百五十一圓四十錢大新八十九圓九十錢으로 少堅裡에 寄付된市勢도 前途不透明으로 傍觀되어不動閑散裡에揉合하다가 結局東新百五十一圓丁으로 前場을마치는데 週日乃至十日이 걸릴지는 모르되 如何튼 이것이 끗나면 市勢는 다시 回復步調를 밟을것이라함이 市勢一般의 觀測인모양이다

金鑛株奔騰!

電力株는保合 紡績株는 部分高下이나 金鑛株는 一齊暴騰하고 材料잇는株와 有望視되는物色氣가 依然潛在하야 鑛株는 大體로는 回復商情에잇다고볼수잇슬가한다 日本毛織株는 一圓五十錢急騰으로 一○八五、○이며 東邦人造五十錢高로 三三、五 日本紡四十錢高로 一○九、九○ 同新八十錢高로 四五、五○이나富士瓦斯工은 六十錢低로 六三、○ 同新一圓七十錢低로 三三、八이며 岸和田紡은 三十錢高六八、○이데 日出紡은 一圓低로 六二、○ 同新二十錢低로 二九、○이며 日本綿花新은 一圓三十錢高 一七、五이어서 人造紡績은區區인데 日產新은 沸込說로 五十錢高인 三四、○ 日鑛新은 八十圓丁으로부터 三圓 다시五圓丁까지 奔騰하엿다가 八四、八이엇스며 三菱鑛新도 一圓高로 八七、○ 朝鮮製鍊은 一圓躍高하야 三三、五 도렷지는 七十錢高인 三三、二로 全鑛株는 狂騰場面이엇다. 其他大阪製鐵은 五十錢高로 六○、○○同新이 一圓高로 二○、○이며 電化는 八十錢高로 七二、五 同新八十錢高로 五八、五이엇고 日本데례는 [illegible] 再進하야 一圓六十錢으로 그後 第二데재 [illegible] 六

實物前場取引

▲同大產業 [illegible] ▲日本데재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第二데재 [illegible] ▲人造辛毛 [illegible] ▲東洋모스新 [illegible] ▲大日本炭鑛 [illegible] ▲에라파이新 [illegible] ▲芥子鋼管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取引高 一○○枚)

國債 閑散裡에 區區

▲東京 【東京電話同盟】 政局形勢觀望으로 場面은 아직 無活氣閑散하야 變方의 遠分商誌으로 五分利는 少緩이고 四、二回四分은 堅調로 區區하며 佛貨도 氣重하엿고 米貨는 六分半十錢低五分半은 不變이엇다

▲一回四分利 一○○七○ ▲二回四分利 一○○○○ ▲佛貨 一九

▲大 ▲甲五分利 一○○ ▲第三五分 一○一○○ ▲一回四分 一○一六○ ▲二回四分 一○一六○ ▲佛貨 一九一六二 ▲米貨六分半 一○○二五 ▲滿洲公債 [illegible]

期米 反騰

前場底堅 後場依然

昨後場阪地三十一期 [illegible]

市場寸感

株…宇垣氏出馬를 如何히 好意한다할지라도 組閣이不成立인데야奈何오? ▲財界는 關觀市場은 低迷를 不免할러 ▲그러나 宇垣氏가 絕望으로 拜辭한다고 內閣이 不成立될것이아니오 또한今後의政府政策도 한보지안코도알일이니 ▲財界의根本基調가 不變이라면 市勢의 갈곳도 不言而可知 ▲다만目前의 揉合은 不可避일것은勿論 ▲그러나 此邊이 賣買雙方이 考慮할곳이아닐가?

米…今回 政府米 七十萬石買上에는 朝鮮米와 臺灣米를 合하야 三十萬石이나되므로 日本內地米는 四十萬石程度 ▲此買上의 成績이 마치 何如할지는 모르나 此四十萬石程度의 買上이 完了된다할지라도 政府는 아프로 五、六十萬石의 買上할것이 남아잇다 ▲何如間 그數字만은 今春內에 買上을 完了하고야말것이므로 政策의 强材는 아즉도潛在 ▲그러고 產地農家의 態度로보면 依然 實情不急하야 低價엔 波及하지안흠을 보면 今回 朝鮮米의 買上不良을 可期。

當地割高보다

阪止米價割低

元來阪仁의 鮮米와日本內地米의 格差 一圓三十錢과 當地로부터 當島市場의 入庫에까지의 運賃其他諸費用 一圓二十錢 合計 二圓五十錢임으로 적어도二百四、五十丁으로 開鞘되어야할것이라 當地의 [illegible]

組閣? 流產?

米界今後一考

宇垣大將은 新內閣首班의 大命을 拜受한지 五日이 되도록 軍部의 反對로 組閣의 暗礁에 걸리어 陸相의 人選問題가 困難하야 今日再次參內한後에는 左右間決定할모양이다 果然『組閣?流產?』 此가 一般의 官界及社會에는 商工界에까지 一大話題가 되어잇다 此話題의 解決如何에 依하야 諸物價의 趨移에 떨어 米界에도 波紋이 잇슬모양인데 要하면 宇垣內閣이 組織되는때는 所謂 政局安定이라하야 株米其他物價가 數段의 爆發을 示하기十常八九일것이오 流產이되는때는 正反對의 低落을 告할것갓다 그러나 宇垣內閣이 實現되지 못하는때는 又一層强力內閣의 出現을 豫期할수잇스며 株米兩界는 一時的軟態에 止할뿐으로 結局은 前內閣의 旣定方針인 三十億 [illegible]

後場上放

後場은 三十圓四十七錢인 入替高로 始하야 三圓五十三錢으로 上放하고 四五圓五十七錢으로 [illegible]

今日財界 (廿八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仁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ドAQ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illegible]

各地當限受渡內容

	受渡石數	價格
大阪	一、六○○	三一、五○
東京	五、九○○	三一、七○
大邱	一○二○○	三○、三○
釜山	二○○	三○、七○

堂前場情報

【大阪電話】 納會에 直面하야 整理賣買가 一段進捗되어 卅一圓八十錢으로 平穩히 納會하엿다 受渡는 下關側의 林兼과 市川이오 受方은 神戶側의 地場이오 價格은 卅一圓五十錢으로 昭和五年十月限以來의 小受渡이엇다 政局不安과 月末關係로 整理賣買續行의 場面으로 一高一低의 保合이엇다 米自體의 材料一巡으로 目前新規材料가 나오지안는限 局面展開는 困難하야 一

正米 底堅裡에 保合

▲賣方 地場軟洸 中東側 [illegible] ▲買方 朝鮮側 地場 [illegible]

京城不變 目前買上을압두고市況은 底堅하나 日本內地不買로 實買는 매우不振狀態이다 ⑥三等三○、三○ 四等三○、○○ 一等白米三三、○○

仁川閑散 當地正米가 强勢임은 產地依然하야 不變이나 他地에 比하야 割高되어 도모지 賣行되지안는다 조금식잇는 買物도 거의 買埋로 市況은 자못閑散이다 ⑥三等三○、三○ 四等三○、四五 一等白米 [illegible]

釜山下押 低價는 强硬히 實需筋의 態度를 觀望하고잇스나 月末關係로 買氣가 不添고 兼하야 舊正關係의 金融實物이 擬潮되어 實買는 活潑치 못하다 ⑥三等三○、六○ 四等三○、三○ 一等白米 三一、九○

大邱軟調 買上發表以來總體的으로 强硬하나 適價格의 實物이 相當히 出現하야 定期伸悩도 兼하야 舊配繼續十錢軟化이엇다 ⑥三等三○、二○ 四等三○、○○ 一等白米 三二、二五

群山强調 定期不振에加하야 舊正前의 換金實物도 相當히 出現하야 今朝奧地로부터 十三輛의 出廻가잇섯다 目前買上을 압두고 잇는것만큼 大商側에잇서 市況은依然 强調를示하고잇다 ⑥三等三○、一○ 四等二九、九○ 一等白米 三一、八○

木浦底堅 日本內地는政局安全待로 買付해오지안흐나 當限納會接近과함께 價値如何로는 買氣가 엿보여 底意極히 堅調를示하고잇다 ⑥三等三○、四○ 四等三○、一○ 一等白米 三一、三○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東 期米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illegible]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販賣引換金代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短期主要株取組 ◆實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京城 仁川 米 株 金益證券 金益商會

◆朝取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木浦期米 [illegible]

期米 株式 玉 柳來恒取引店

海外經濟 (二十七日)

◆銀行券 (二十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大阪金利 ◆東京金利 [illegible]

◆鰮油粕·麥粉 ◆阪神鰮油 ◆阪神鰮粕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正米高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灣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illegible]